

ISSN 1277-1489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RESEARCH

TEXTBOOK

교과서 연구

2015. 09. 제 81호

특.별.기.획.

2015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쉽고 편리한
교실 수업 지원 사이트,
두클래스



Douclass

교실 수업 자료의 모든 것, 두클래스

- 풍부한 학습자료
- 쉽고 편리한 스마트 수업

두클래스란?

선생님들께 무료로 제공되는 교실 수업 지원 사이트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

- 집중이수제 취지에 맞는 수업 지원
- 수준별 학습 가능
- 방과후 수업 대응 가능

편리한 스마트 수업

- 교실 특성에 맞춘 과목별 디지털 교과서 제공
- 선생님의 개인별 맞춤수업 교안 작성 가능
- 다양한 수업 모형 제공

풍부한 학습자료 제공

- 교과서, 지도서, 이미지, 멀티미디어, 동영상 및 사전 13종 검색 가능
- 문예은행 서비스 제공
-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과목별 콘텐츠 제공

대상: 초·중·고등 선생님

- 초등: 음악, 미술, 체육, 실과, 독도, 창의적 체험활동 등
- 중등: 전과목
- 고등: 국어, 문학, 영어, 실용영어,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와 벡터, 한국사, 한문, 기술·가정, 운동과 건강생활, 스포츠문화, 진로와 직업 등



교과서 연구
계간지
2015년 가을
통권 제81호

목 차

권두언

- 04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편을 앞두고 / 박제운

특별기획 · 2015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 10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 / 정영근
16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 김창원
24 영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 임찬빈
30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 모경환
37 과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 박영순

정책해설

- 44 「교과용도서 개발체제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 / 김대원

논 단

- 50 핵심 성취기준 중심의 과학 교과서 시범 단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임유나

연구논문

- 58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교과서 집필 경험에 대한 기술 / 김세영

국제동향

- 63 독일 교육의 단면 / 지양우

현장교육

- 68 교장과 학생이 함께하며 키우는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 / 장계연

명사 초대석

- 76 법정에 세워진 국사교과서 / 윤종영

교과서에 실린 작품 이야기

- 83 아름다운 몽상, 육사의 “청포도” / 김원길

교과서 편집자의 이야기

- 89 수학 교과서, 인정도서가 되다 / 배경윤

탐방 -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 94 왜곡된 내용 없이 수준 높은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 / (주)더텍스트 대표 장호진

정책자료

- 100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
106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TIOS) 안내
108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110 원고 모집
111 교과서정보관 원문 이용 안내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편을 앞두고



박 제 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가는 학교 교육을 논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다. 이를 우리는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학교에서 참다운 배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수업이 결정되고 학습의 질이 달라진다. 또한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담는 그릇이라고 볼 때, 교육과정이 교과서로 어떻게 구현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교육현안에서 교수·학습의 주요 자료이자 핵심 콘텐츠인 교과서는 늘 논란의 중심에서 있다. 더욱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수업과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과서는 무엇을 담아내야 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지게 된다.

교육부는 작년부터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



인지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간상과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모든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관한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총론의 취지가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어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이 가능하도록 학습내용을 적정화하며,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교실수업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모든 학습자가 길러야 할 기본적인 필수적인 능력을 ‘핵심역량’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융합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정보처리 역량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핵심역량 요소를

교과별 특징에 맞게 선택 반영하되,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학생 중심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친절한 교과서 개발을 목적으로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기존 교과서는 학습자들의 지적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해옴으로써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과 암기 위주의 교육 풍토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학생 발달수준보다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서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개발될 교과서는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실생활 사례와 친절한 학습안내 등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과서의 완성도와 현장적합성이 선결과제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교과별 핵심역량 요소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활용 가능하고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교과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적절한 교과서 분량과 외형체제, 효율적인 교과서 지면 활용,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이 요구된다.

교육 수요자가 기대하는 ‘친절한 교과서’란 무엇일까? 학습하고 싶은 내적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교과서, 개별학습과 협동학습 구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 단원을 공부하는 이유와 학습을 통해 도달해야하는 목표를 스스로 설정해 보게 하는 교과서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 우수한 집필진, 심의진 등 다양한 인력풀을 구축하고 현장 교원에 대한 교과서 연수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별.기.획.

2015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 △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
- △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 △ 영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 △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 △ 과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국가발전 원동력의 한 축이 교육이요, 교육의 추동력(推動力)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은 교과서라는 기본 기제(機制)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교육과정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목적한 바를 검증하는 헌법적 문서라면, 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목표를 실천하려는 일련의 방법과 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명체라 하겠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여 교육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결국, 이번 교육과정의 안착과 성공 여부도 교과서 개발을 어떻게 하여 현장 변화를 유인(誘引)하느냐에 달렸다고 하겠다. 교과서 개발은 정책의 변화를 담보하는 개발에 관여되는 모든 변인을 총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점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교과서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었는가를 평가하는 메타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부는 오류 없고, 쉽고 재미있는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학생, 교사 및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과서를 발행하기 위해 꼼꼼하고 깊이 있는 검토와 심사 체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질 높은 좋은 교과서’는 ‘개발의 자율성’과 ‘검토 체제의 치밀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개발 방식의 운용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핵심역량을 구현하는 교과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개발도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짐은 물론이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몇몇 주요 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알아보고, 학교 현장에 본질적인 변화를 기대해 본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¹⁾



정 영 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1. 교과서 개발 방향 제시의 필요성

수업에서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기능을 한다. 교과서가 갖는 교육적 의의를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첫째 요인은 법적 구속성을 지닌 국가 교육과정의 존재이다.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취지 및 의도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매개체이다. 둘째 전국 수준의 단일 시험의 존재이다. 고입 및 대입 시험을 비롯하여 학업성취도평가 등 학교 교육과정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는 전국 단일 시험은 교과서가 갖는 현실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셋째, 교과서에 대한 맹목적 신뢰이다. 이것은 교과서를 하나의 성서와 같이 절대시하는 전통적 교과서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전통적인 교과서에 보이는 금과옥조형 교과서 및 교과서 중심 학교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지적 영역 중심의 교과서에서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인 교과서 지향, 교육

1) 본고는 필자가 참여하여 작성한 연구 보고 「이광우 외(2015). 2015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 : 국가 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5-9, pp.59-68」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창의재단(2015). 2015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진 합동 워크숍(4차) 자료집, pp. 37-40」에서 발췌·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 둔다.

과정 중심 학교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기능·태도 영역에 유의하고 창의력, 사고력 배양 강조의 교과서관을 지향하였다(교육부, 1999: 4).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교과서관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로서의 교과서를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교과서가 수업에서 서와 같은 금과옥조형이 아니라 교수·학습 자료의 하나로 보고자 했던 것이다(박순경 외, 2006: 331).

전통적 교과서관이든 교수·학습 자료로서의 교과서관이든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국가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데 교과서는 대단히 유효한 역할·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교과서는 학교 수업의 교수·학습 매개로서의 교과서의 중요성은 물론 국가 교육과정 취지 및 의도를 구현하는 데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 취지 및 의도가 교과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창되고 있는 핵심적 사항이 어떻게 교과서에 담겨져야 하는지를 교과서 개발 전에 계획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교과서 개발 지침’이다.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교과서 개발 지침이 필요한 보다 직접적인 배경은 교육과정 개발자와 교과서 개발자가 다른 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 즉 교육과정 개발자와 교과서

개발자가 다르다면, 교과서 개발자가 교육과정의 취지 및 의도, 핵심적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교과서 개발 지침이 필요하게 된다. 2015개정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및 융합·연계 교육 등의 교육과정 취지뿐만 아니라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도 종래와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담겨져 있다. 2015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이러한 취지 및 의도, 아이디어 등이 교과서에 충분히 담겨질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한 교과서 개발 방향을 강구하여 새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서 개발자의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교과서 개발 방향 및 지침

가. 교과서 개발 방향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새 교육과정의 취지 및 의도, 핵심 사항 등을 반영하여 교과서 개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의 상황에서 보면 이 지침은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 검정기준에는 새 교육과정의 취지 및 의도, 핵심 사항 등뿐만 아니라 교과서 개발과 관련된 내·외적 체제까지 담고 있는데, 크게 총괄적 성격을 갖는 ‘편찬방향,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및 공통 검정기준’과 ‘교과목별 편찬상의 유의점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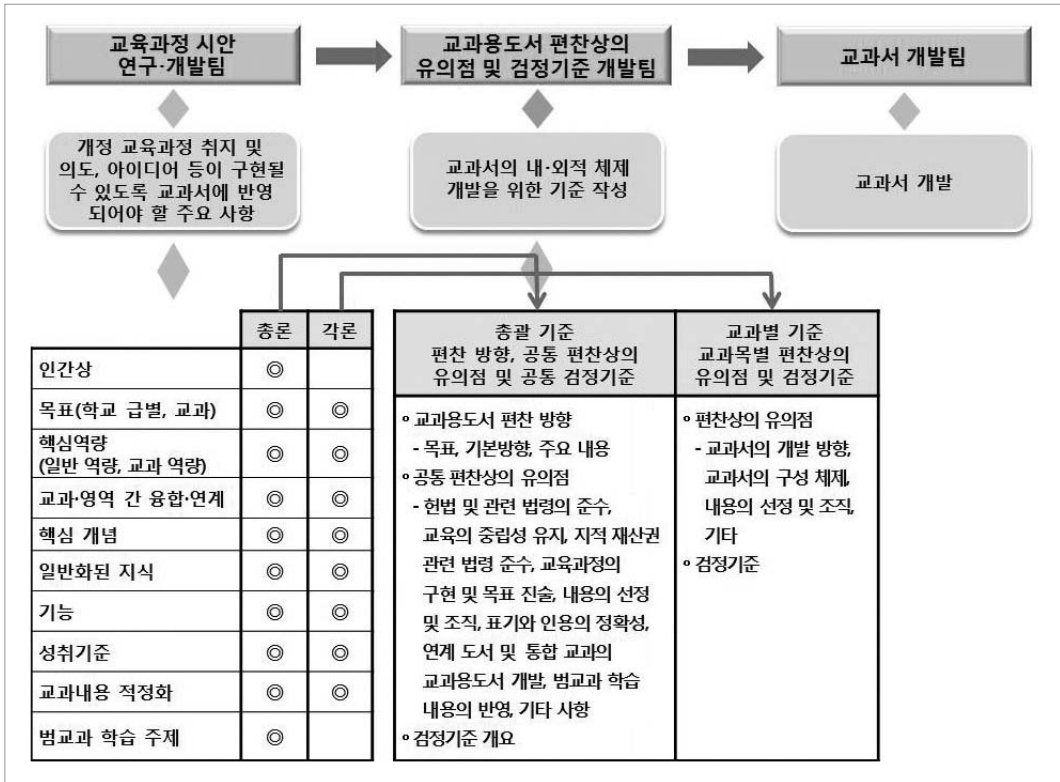
검정기준’으로 분류되어 편성되어 있고, ‘편찬 방향,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및 공통 검정기준’은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검정기준 개요 및 공통 검정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용도서 편찬 지침을 보면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지극히 일반적 및 이론적 수준의 방향·지침에서 새 교육과정의 주요 반영 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현행의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서 볼 때, 교과서 개발 지침은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교과서의 내·외적 체제에 관한 이론적 고려 사항과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 및 의도, 주요 아이디어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제시되어 있다. 나아가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 즉 총론상의 반영 필요 사항과 교과 교육과정의 공통 반영 사항, 교과목별 반영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의 두 가지는 교과 공통 사항이고 나머지 하나는 교과목별 고려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새 교육과정의 취지 및 의도, 주요 아이디어가 교과서에 충분히 반영되어 학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과 공통 사항과 각 교과목별로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는 주요 사항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교과서 개발 방향’은 2015개정 교육과정의 취지 및 의도, 아이디어가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교과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고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교과서 개발 방향’은 ‘2015개정 교육과정 시안 연구·개발팀’이 개정 교육과정 취지 및 의도, 아이디어 등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 사항을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개발팀’에게 제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교과서 개발 방향’은 특히 개발된 교육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림]에 제시되어 있듯이 2015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과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주요 사항으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인간상, 목표(학교 급별 목표, 교과 목표 등), 핵심역량(일반 역량, 교과 역량), 교과·영역 간 융합·연계,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 성취기준, 교과내용 적정화, 범교과 학습 주제 등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는 개정 슬로건 하에 교육과정상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을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일반 역량과 교과 역량을 추출하여 제시하였으며, 분과적 교과 교육과정을



[그림] 교육과정 시안 연구·개발팀의 교과서 개발 관련 지침 구조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교과 간 및 영역 간 융합·연계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선, 학생들의 보다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시수의 80%라는 교과 내용의 적정화 도모, 각 교과 고유의 영역 및 학년(군) 내용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기능을 새롭게 도입, 학습 결과의 기대 수행 능력을 강조하는 성취기준 진술 등 다양한 개선 작업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은 2015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의도, 아이디어가 학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학교 수업에서 절대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교과서에 교육과정 개발의 의도가 충분히 담겨져야 한다.

2015개정 교육과정 시안 연구·개발팀이 제시할 필요가 있는 ‘교과서 개발 방향’은 총론상과 각론상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총론 수준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는, 예컨대 [그림]에서 총론란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가운데 총괄 기준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론 수준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림]의 각론란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는 각 교과목의 특성 및 특색에 비추어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가운데 교과별 기준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각론 수준에서 제시하는 교과서 개발 방향은 각 교과목별 교과 교육과정 시안 연구·개발팀이 제안하는 것인데, 본고에서는 각 교과목별 시안 연구·개발팀이 제안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항을 적시해 두 고자 한다.

나. 총괄 수준의 교과서 개발 방향

총괄 수준의 교과서 개발 방향은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 가운데 주로 총괄 기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제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개발 작성팀은 다 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2015개정 교육과정의 취 지 및 의도, 아이디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발의 의도가 교과서에 충분히 담겨 질 수 있도록 기준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총론

- 교육과정 총론의 인간상 및 구성 방침, 학교 급별 목 표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2) 핵심역량 구현

- 교과 역량이 구현되는 교과서를 구성한다.
- 교과 학습을 통해 지식의 체득과 역량이 육성될 수 있도록 단원의 성격 및 특성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안내한다.

(3) 융합·연계 교육

-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관련 교과의 핵심 개념 및 성취기준 코드를 반영하여 교과 및 영역 간 융합·연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한다.
- 통합 교과의 경우 교과 및 영역 간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한다.

(4) 교과 내용의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 취지 구현

- 교과서의 각 단원은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각 교과 및 영역에 제시된 기능이 길러질 수 있도록 단위 내용(학습요소, 주제, 소재 등)을 선정하여 수업 활동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5) 성취기준의 정합성

- 교과서의 내용은 (각 영역의)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선정·조직되어야 한다.

(6) 교과서 내용의 적정화

-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의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적 정량의 내용을 선정한다.
-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습요소를 중심으로 단위 (주제, 소재 등)를 구성하여 교과서 개발에서 학습 내용의 양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 교과 교육과정의 각 성취기준의 시간 분량(차시 분 량)을 충분히 감안하여 성취기준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선정한다.
- 성취기준의 시간(차시) 분량 및 학습 요소를 파악하 여, 학습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범교과 학습 주제 반영


-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범교과 학습 주제를 면밀 히 파악하여 밀접하게 관련된 단원에서 충분히 다 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한다.
- 범교과 학습 주제는 가능한 한 타 교과 지식과 통합 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다. 각론 수준의 교과서 개발 방향

교과 공통인 총괄 수준의 교과서 개발 방향

과는 별도로 각 교과목별로도 해당 교과목의 성격 및 특성에 비추어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또한 각 교과목별 교육과정 시안 연구·개발자는 해당 교과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의도한 바대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그 취지 및 의도, 아이디어가 충분히 담겨져야 한다. 특히 2015개정 교과 교육과정은 종래와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 및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 및 변화가 구현되는 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반영되도록 제안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내용 선정·조직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과 관련하여 본고에서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과 목표
 - 교과에서 설정한 '목표'가 구현되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개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밝혀 둔다.
- 교과 역량
 - 교과에서 설정한 '교과 역량'이 구현되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개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밝혀 둔다.
-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
 - 교과에서 제시한 핵심 개념 및 일반화된 지식, 기능이 체득될 수 있는 주제 및 소재 등을 교과서에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밝혀 둔다.
- 성취기준
 - 교과서 개발자(집필자)가 오해 또는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성취기준, 특히 강조 및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성취기준의 경우, 교육과정 문서 '영역(또는 성취기준 그룹)별로 제시되어 있는 '성취기준 해설'을 참조하여 집필하도록 밝혀 둔다.

- 교과서 내용 적정화(양과 수준)
 - 교육과정 문서 '영역(성취기준 그룹)별로 제시되어 있는 '학습 요소(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핵심어 및 요소 등의 형태로 제시한 것)' 등을 적시하여, 교과서 개발에서 학습내용의 양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 각 성취기준에 고려된 '시간(차시) 분량'이 교과서 개발에 반영되어 적정 분량의 학습내용(학습 요소, 주제, 소재 등)이 제시되도록 안내한다.
- 교과·영역 간 융합 연계
 - 성취기준에 제시된 관련 타 교과의 성취기준을 검토하여 교과서를 집필하도록 한다.
 - 관련 타 교과의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주제 및 소재 등을 구성하여 교과서를 통해 교과 간 융합·연계 수업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한다.
- 교과(목) 구조·체계 특성에 비추어 교과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주요 사항 

참고문헌

- 교육부(1999).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2종 교과용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중학교).
- 박순경 외(200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6-4.
- 이광우 외(2015). 2015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 : 국가 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5-9.
-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창의재단(2015). 2015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진 합동 워크숍(4차) 자료집.

필자소개

일본 쓰쿠바대학교 박사학위 취득하고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교육과정본부 교육과정연구실장을 역임하고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¹⁾



김 창 원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 교육과정 개정 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지방교육 자치를 표방하면서도 국가수준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국적으로 단일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초등학교의 대부분 과목은 국정 교과서를, 초등학교 일부와 대부분의 중·고교 과목은 검정 교과서를,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국정뿐 아니라 검·인정 교과서도 개발과 선정의 전면에는 위원회나 평가원, 교육청 등이 있지만 정부와의 연계가 필연적이다.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전국 단위의 표준화 평가에도 정부 주도의 경우가 많다. 국토의 면적과 인구를 감안할 때 미국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교육 자치를 운영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 5천만 인구를 고려하면 정부의 권한이 많은 교육 체제도 그다지 효율적이지는 않는다고 본다. 현재는 중간 정도 수준의 교육 자치가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중간’을 유지하는 핵심 고리가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다.

국가(정부라 해도 좋다)가 교육과정을 통해 공교육을 통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물론 이때의 ‘통제’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모두 지녀서, 교육의 균질성과 수월성을 보장하는 보루로 해석되기도 하

1) 이 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검토 공개 토론회」 자료집(연구자료 ORM 2015-61)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기술한 것이다.

고 국가의 이념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2014년부터 개정에 착수하여 2015년 9월이면 새로운 교육과정이 고시된다. 이어서 2017~2018년에는 새 교과서가 현장에 투입된다. 이 작업은 2009년에 다소 서둘러서 고시했던 교육과정을 미래 지향적인 교육이념에 맞춰 ‘제대로’ 정비한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자주 바뀌다 보니 교사·학습자·학부모의 혼란과 불만이 많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혼란을 느끼는 집단이 교육과정·교과서를 직접 개발하는 교과 전문가들이다.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이해는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게는 필수적이다. 국정이든 검정이든 마찬가지다. 국어과 같은 기본·도구 교과일수록 가르쳐야 할 지식이나 기능의 성격은 크게 변하지 않으므로 교육과정을 통해 개정 성과를 보이기도 쉽지 않다. 그에 비해 교과서는 제재를 바꾸고 새로운 장치를 마련하며 편집·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바뀌었다’는 인상을 주기가 쉽다. 교육과정 개발자들에게 교과서 개발의 방향을 맡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개편을 위한 개편’으로 빠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교육과정이 국가와 교육 현장을 연결하는 고리인 것처럼, ‘교과서 개발의 방향’은 교육과정과 실제 교과서를 연결하는 고리다.

2. 국어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과 그 취지

2015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교과가 ‘1. 성격 - 2. 목표 - 3.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으로 문서 체계를 맞추었다.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의 과제에는 ‘5. 교과서 개발의 방향’이 있지만 공식 교육과정 문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평가원에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교과서 편찬 지침’과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연구 과제에 포함시키고도 교육과정 문서에는 신지 않는 이유는 ‘교과서 개발의 방향’을 공식화함으로써 검·인정제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으로 보인다. 검정 통가가 제일 목표인 교과서 출판사 입장에서 ‘교과서 개발의 방향’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면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일 것이 뻔하므로, 이런 걱정이 기우라고 볼 수도 없다. 하지만 실제 개발 과정에서는 어떤 형식이든 ‘교과서 개발의 방향’을 참조하리라는 것이 자명하므로, 교육과정 연구 팀은 ‘교과서 개발의 방향’을 최대한 보편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으로, 교과서 개발자의 철학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애썼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원론적인 기술에 그쳤다.”거나 “실질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이 나오겠지만, 그러한 비판을 받더라도 교과서 개발자들이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2015. 8. 7. 공청회) 초안 상태인 국어 과 ‘5. 교과서 개발의 방향’은 다음 [표]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새 교과서 개발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일부만 발췌하였으며, 밑줄과 부호는 필자가 표시한 것이다.)

순서를 뒤집어서 고등학교 선택 과목부터 보자. 분량상 여기서는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과목의 내용은 뺐다. 각각 고유한 방향과 주안점이 있지만, 공통 ‘국어’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보편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으로 기술했기 때문이다.

‘언어와 매체’의 내용을 제시한 이유는 ‘매체’ 때문이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2007개정 교육과정에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진 ‘매체(언어)’ 과목을 부분적으로 되살렸는데, 교과서로 구현하기에 가장 어려운 영역이 매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체 교재는 교사가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화나 광고, 대중가요 같은 매체 자료는 몇 달만 지나도 학생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㉔) 교과서에 특정 작품이나 자료를 싣는다 해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교과서에는 성취 기준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매체 자료의 특성’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전 읽기’의 내용을 제시한 이유는 이 과목을 ‘교과서 없는 과목’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㉕) 현재 ‘고전’ 교과서가 있지만 단편적인 글 모음처럼 되어 있어서 ‘독서’ 교과서와 차별화되지 않고 과목의 원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고전 읽기’의 취지는 교사와 학습자의 관심과 수준에 따라 적절한 고전을 선택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는 것인데, 쪽수 제한을 두고 미리 만들어진 교과서로는 그런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교과서가 없다 보니 아무 부담 없이 EBS 교재 중심으로 입시 수업에 몰입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텍스트 선정에서 정치·종교적 편향성이나 상업성이 개입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어느 방향이 본질에 더 가까운지를 숙의한 결과, 한 편의 정전을 긴 호흡으로 읽으면서 토론·조사·논술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일의 가치가 예상되는 부작용보다 더 크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부작용에 관한 부분은 학교와 교사의 의지와 양식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다시 공통 ‘국어’로 돌아가 보자. 문서의 세부 내용은 대부분 생략했고, 제시한 내용 중 연구 팀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부호와 밑줄로 표시하였다.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만 더 서술해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표〉 교과서 개발의 방향

1. 공통 방향

- 가. 국어과의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유의미한 학습 활동을 구성하여 개발한다.
- 나. 국어 교과 내, 국어 교과와 다른 교과 간, 국어 교과와 비교과 활동 및 학교 밖 생활과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개발한다.
- 다. 학습자의 발달 수준과 흥미,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발한다.
 - ① 학습자의 인지·정서 및 신체 발달의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발하되, 특히 ㉢초등학교 1~2학년군의 한글 해득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시지각, 손·손가락 조작 기능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 라. 학습 내용 및 ㉢학습 활동의 범위와 수준을 적정화하여 개발한다.
- 마. ㉣학습자의 다양한 언어 배경과 문화 배경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 바. 학습자가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 사. 학교급 간 계열성 및 학년군 간 계열성이 드러나도록 개발한다.
 - ① ㉥누리 과정과 공통 과정, 공통 과정과 선택 과정의 내용과 활동이 연계되며 심화·확장되도록 개발한다.

2. 과목별 방향

가. 공통 ‘국어’(1~10학년)

- ①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정신과 의도에 따라 국어 교과의 성격 및 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 ② 성취 기준을 충실하고 균형 있게 다루면서 ㉠국어과 핵심 역량을 함양하도록 개발한다.
- ③ 학습자가 세부적인 지식이나 기능에 얽매이지 않고 ㉧담화나 글, 작품을 온전하게 수용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 ④ ㉢학습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하고, 학습자가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휘와 표현을 사용하여 개발한다.
- ⑤ 학습자의 실제 생활을 반영하고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학습 자료 및 제재를 선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 ⑥ 단원, 학습 자료 또는 제재, 학습 과제와 활동을 체계적이면서 창의적으로 구성하여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개발한다.
- ⑦ ㉨책 한 권을 완독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하고 통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나. 선택 과목(11~12학년)

[언어와 매체]

- ⑤ ㉩매체와 관련되는 지식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사와 학습자가 유연하게 자료와 활동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고전 읽기]

- ① 고전 읽기는 ㉪별도의 교과서를 개발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학교 또는 교사 차원에서 교육과정 목표와 성취 기준,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교수·학습 자료를 선정 또는 구성하여 활용한다.

㉠ 핵심역량 기반 교과서

2015개정 교육과정은 총론 차원에서 ‘핵심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을 추구하였다. 그에 따라 국어과에서도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자료·정보 활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대인관계 능력, 문화 향유 능력, 자기 성찰·계발 능력을 핵심역량으로 설정하였으며, 교과서 역시 이러한 역량을 실질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 실질적인 배움이 있는 교과서

국어과를 포함하여 그동안 학교 교육에 가해진 비판 중 하나가 ‘활동은 하는데 학습이 없는’ 수업이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과거에 비해 수업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교사도 학생도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고,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대다수 학생들이 진정한 교육 목표와는 먼 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새 교과서는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과서를 지향해야 한다.

㉢ 통합형 교과서

2015개정 교육과정 개정의 출발점이 ‘문·이과 통합’이었다. 국어과는 문·이과 구별과 다소 거리가 있고 총론 차원에서도 이 테제는 사라졌지만, ‘통합’이라는 방향은 여전히 살아 있다.

통합의 범위로 보면 국어과 내의 영역 통합이나 국어과와 다른 교과 혹은 비교과 사이의 통합이 가능하고, 통합 축으로 보면 활동 중심 통합이나 주제 중심 통합 등이 가능하다. 그밖에도 다양한 통합 이론이 있는데, 새 교과서는 이러한 통합이 수월히 일어나도록 구성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를 수 있다.

㉣ 기본 문식성을 함양하는 교과서

㉣은 초등학교 1~2학년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면서 한글 해득으로 한정됐지만, 원 취지는 읽기와 쓰기 전 영역에서 기본적인 문식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비판적 읽기가 안 되거나 쓰기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학생이 많은데, 그 책임의 대부분은 국어과에 있다 할 것이다. 새 교과서는 비판적 리터러시, 문화적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문식성을 함양하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 학습자의 관심과 수준에 적합한 교과서

교과서에 대한 불만 중 또 하나 많은 것이 “학습량이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제재(글)가 어렵다든지, 길다든지, 학습 활동이 많다든지, 실제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든지 하는 문제가 모두 포함된다. 나아가, 대단원 도입부터 마무리

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단계를 설정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는 단위 체제도 포함된다. 학습자가 재미를 느끼며 주어진 시간 내에 자신감을 갖고 학습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 사회 다양성에 대비하는 교과서

국제 표준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동성결혼 문제로 여론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고, 종교 계통의 학교뿐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교사의 종교 편향이 문제되기도 했다. 이른바 보수-진보의 갈등도 여전하다. 교과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개인의 양심을 지키는 선에서 모든 종류의 소수 집단, 모든 종류의 가치관, 모든 종류의 문화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 인성을 함양하는 교과서

미래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주로 거론하는 키워드가 창의·인성이다. 특히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는 인성교육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국어과는 도덕과 못지않게 인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교과로서, 간접적·자율적·잠재적으로 인성을 함양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인성교육에 더 중요한 교과라고 할 수 있다. 새 교과서는 인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제재뿐 아니라 다양한 인성 계발

활동도 포함된다.

㉢ 계열성과 위계성을 구현하는 교과서

학년군제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과거에 비해 학년 간 계열성 문제는 심각성이 다소 줄어들었다. 그에 비해 학년군 간, 학교급 간 계열성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게 남아 있다. 특히 중학교 전체가 하나의 학년군으로 묶이면서 내용이 방대해져서, 중학교 신입생이 겪는 학습 충격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 영·유아의 80~90% 정도만 거치는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사이도 그렇고, 고등학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사이도 마찬가지다. 학년 간 계열성과 위계성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새 학년군이 나 학교급에 연차록할 수 있도록 하는 친절한 교과서가 필요하다.

㉣ 실질적인 국어 역량을 신장하는 교과서

국어교육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는데, 그중 자주 듣는 것이 “발표도 제대로 못 한다.”거나 “글도 제대로 못 쓴다.” 혹은 “~도 모른다(안 읽었다).”와 같은 실질적인 능력에 관한 비판이다. 기능 중심, 과정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면서 학생들의 세부 기능은 날카로워졌지만 총체적인 역량 면에서는 크게 나아진 부분이 없는 것이다.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정신은 ‘핵심역량에 기반을 둔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국어

역량'의 신장이므로 그에 맞추어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

㉔ 완성된 긴 글을 읽는 교과서

수학능력시험이 국어교육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주었지만, 한편으로 나쁜 영향도 많이 남겼다. 그중 하나가 '긴 글 읽기'의 필요성이 없어진 점이다. '1,200자 내외의 짧은 지문을 빨리 읽는 능력'이 수능 성적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지적·정서적으로 변화가 빠른 초등학교 고학년~중학교 단계에서 한 편의 글, 혹은 한 권의 책을 통독하는 경험이 줄면서 학습자의 기본적인 독서력은 물론이고 인성교육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낳았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세부 과목을 막론하고 '긴 글을 읽고 다양하며 심층적인 활동하기'를 강조하여, 국어교육 및 교육 일반의 요구에 응답하여야 한다.

㉕ 응용력이 있는 교과서

제5차 교육과정 이후 '교과서는 다양한 교재의 예 중 하나'라는 명제는 국어과의 보편 명제가 되었다. 교사 양성 대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며, 교사들도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교과서 지상주의가 아직 남아 있어서 '교과서대로' 수업하는 사례가 많다. 그 이유는 학부모·학생들이 교과서대

로 안 가르치는 데 대해 불안해하는 점도 있고, 교과서가 과정 중심, 활동 중심으로 '너무 잘 만들어져서' 그대로만 하면 수업이 잘 이루어지는 역설적 상황도 있다. 그러나 개개 학생들의 요구는 이미 만들어진 교과서로 감당하기에 너무 다양하므로 각각의 수준과 요구에 따라 손쉽게 변용할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3. 더 나은 교과서, 더 나은 국어교육

일반적으로 수업은 '교재를 매개로 한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소통'이라고들 한다. 혹은 '교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교재와 학습자 사이의 소통'이라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전자보다 후자의 입장이 더 강한 듯 보이는데, 이는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메타적 학습을 강조하는 추세와 일맥상통한다. 어느 경우든 교재의 핵심에는 교과서가 있으며, 많은 경우 한 학기의 수업은 '교과서를 떼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교과서 없는 수업이 점차 많아지고 있지만, 기실 그것은 완전한 '교과서 없는 수업'이 아니라 '교과서를 참고한' 혹은 '교과서를 변용한' 수업일 뿐이다. 교과서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의 출발점이다.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에 기반을 둔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국어 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하며, 그를 위해서 내용 체계를 정비하고 ‘5. 교과서 개발의 방향’을 작성하였다. 현장에서는 교과서를 통해 교육과정이 바뀌었다는 점을 실감하므로, 바람직한 교과서의 개발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구현하고 국어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재(글)의 질을 높임으로써 창의·인성 교육에 기여하고 학습자의 교양을 함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필자소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졸(교육학박사)
서울북공업고등학교·용산고등학교 교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영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임 찬 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총론 및 교과별 교육과정이 거의 개발 완료되어 9월말 고시를 예고한 바 있다. 이 시점에서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따른 교과서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그 개정된 교육과정의 최대 수혜자는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육과정 문서 자체보다는 교육과정이 구체화된 교과서를 통해 개정 교육과정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정된 교육과정의 방향과 취지, 혹은 핵심 내용을 학교교육 현장에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여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에서 2015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의 중점 내용과 그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과 개발 시에 준수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2. 2015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¹⁾

2015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을 위하여 우선 2015

1) 2015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시안 검토 공청회 자료집을 참고로 재구성하였음. 연구자료 ORM-2015-56-11.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방향을 잘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15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2015개정 총론 교육과정의 핵심인,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미래 사회 핵심역량 중 영어과에 적용할 수 있는 필수 핵심역량을 추출하여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영어 교과목의 핵심역량은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으로 세분화 되었다. 첫째, ‘영어 의사소통 역량’은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역량이며, 영어 이해 능력과 영어 표현능력을 포함한다. 둘째, ‘자기관리 역량’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지속 할 수 있는 역량이며, 영어에 대한 흥미, 영어 학습 동기, 영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 유지, 학습전략, 자기 관리 및 평가를 포함한다. 셋째, ‘공동체 역량’은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며, 배려와 관용, 대인관계 능력,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을 포함한다. 넷

째,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영어로 표현된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역량이며, 정보 수집·분석 능력, 매체 활용능력, 정보 윤리를 포함한다.

이 같은 영어 교과목의 핵심역량은 교과서에서 소재나 이야기, 글감, 교수·학습활동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2015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영어 교과목의 기본목표인 영어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의 습득을 통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내용체계를 구조화하고, 어휘 적정화와 언어형식의 학교 급별 수준 제시를 통해 수업 적정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학생 중심 수업 및 참여·협력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

3. 2015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의 방향

2015 총론 및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철학과 방향을 고려할 때 교과서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 총론 개정의 취지와 영어과 교과목 역량을 반영하는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고려해

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

이는 영어 의사소통기능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나 활동을 구안할 때에도 창의·융합적 사고력 신장과 인성 교육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주로 교수·학습 방법과 활동에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

배려와 관용, 대인관계 능력,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 등이 소재 및 문화 관련 교수·학습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교수·학습 활동과도 다양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지속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흥미와 학습동기, 자신감을 유발하고 지속시켜 줄 수 있는 활동과 전략이 들어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방안을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

의사소통기능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이 영어 교과서의 주된 목표이지만, 그 목표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정보 수집과 분석, 활용 능력, 정보 윤리에 대한 인식과 자각, 다양한 매체 활용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어과 개정 중점 내용을 교과서 개발 시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본사항들도 있다.

첫째, 수업적정화가 구현되어야 한다.

2015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내용적으로 크게 변화된 것이 몇 가지 있다. 예를 들면, 영어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구조화 및 어휘 적정화, 언어형식의 학교 급별 수준 제시가 그 예이다. 이는 학습량 감축에 따른 수업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급/학년군 별 내용체계 제시를 통해 학교 급, 혹은 학년군 별로 무엇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적정한지를 제시하고, 어휘와 언어형식의 수준별 안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들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개선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15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문서 특징 중 하나는 각 언어 영역별 성취기준 가운데 성취기준 해설과 학습 요소, 교수·학습과 평가방향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록>에서 학생 중심 수업 및 참여·협력 수업이 가능하고, 교사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교수·학습 활동 예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교과서 내용 구성의 방향

3장에서 언급한 2015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을 고려하되,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고자 할 때 다음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 영어교과 내용체계표에 있는 영역별 핵심개념, 일반적 지식, 학년군 별/학교 급별 내용 요소, 기능 등에 따라 학년군 별/학교 급별 학습 내용을 담아야 한다. 즉, 언어의 네 영역(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핵심 요소와 그에 따른 일반화된 수행 능력, 학년 군, 혹은 학교 급별 내용요소와 기능 등이 구조화된 내용체계표를 참고한다.

둘째, 내용체계표에 따라 계열화된 성취기준

을 기초로 해당 학년군/학교 급에 적절한 성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영역별 성취기준 중 이해하고 적용하기 애매할 수 있는 성취기준의 해설, 학습요소 등을 참고한다.

셋째,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예시를 활용하여 영어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적용 방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부록으로 특정한 성취기준 적용 시 활용하는 교수·학습과 평가 예시(안)이 포함될 경우 참고한다.

넷째, 각 성취기준에 고려된 ‘시간(차시) 분량’이 교과서 개발에 반영되어 적정 분량의 학습내용(학습 요소, 주제, 소재 등)을 고려하여 양과 수준에 있어 교과서 내용을 적정화해야 한다.

다섯째, 교과·영역 간 융합과 연계를 위한 수단으로 성취기준에 제시된 관련 타 교과목의 성취기준을 참고하여 주제 및 소재 등을 구성함으로써, 교과서를 통해 교과 간 융합·연계 수업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영어과 교과서 개발 시에는 붙임 자료로 제공되는 소재와 의사소통기능과 예시문, 어휘, 언어형식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참고로, 2015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붙

임 1] 소재, [붙임 2] 의사소통기능과 예시문은 2009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없으나, [붙임 3] 어휘와 [붙임 4] 언어형식의 경우 학습내용 적정화를 위해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다. 특히 교과서 개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붙임 3] 어휘의 경우, 학년군과 학교 급, 교과목 별로 사용가능한 어휘수를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사용가능한 어휘 수는 3, 4학년군 240단어, 5, 6학년군 260단어, 중학교까지 사용가능한 어휘 수는 총 1,700단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어휘목록은 총 3,000개가 제시되며, 이 가운데 초등학교에서 사용가능한 어휘 목록 800개와 고등학교 진로선택과 전문교과 I 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어휘 목록 500개를 따로 표시하고 있다. 기본 어휘 목록에서 사용가능한 어휘 반영률도 초등과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선택까지는 90%, 그 외 고등 진로선택과 전문교과 I 의 경우 종전과 같은 80%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붙임 4] 언어형식의 경우에도 학습내용 적정화를 위하여 초등과 중·고등 일반선택/고등 진로선택과 전문교과 I 로 수준을 구분하여 권장하고 있다.

5. 나가며

이상으로 교과서 개발 시에 참고하거나 준수

해야 할 사항들을 2015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방향과 중점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열거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공통과목에 이르기까지는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이 없도록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교수·학습 행위를 즐겁고 유익한 것으로 이끌어 가는데 교과서가 중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도했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반추하여 과감하게 개선하는 태도로 교과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교과서 내용이 개인생활 위주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를 주로 다루고 있음에도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유발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구태의연한 소재 보다는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집중되는 소재를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교과서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면, 흥미와 자신감이 유도되는 소재에만 집착하기 보다는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학습전략을 구성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다.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목적과 이유가 시험점수를 잘 받아 좋은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어능력이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글로벌 인간의 기본 역량임을 인식시켜주

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는 영어 교과서에 내용적으로나 방법적으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필자소개

고려대 졸업, 고려대, 성균관대, 세종대, 한국교원대 등에서 교육과정 관련 강의를 수행하였고, 제7차 교육과정,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영어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과 적용 관련 연구보고서 및 영어교육학 신론 외 역서 다수

참고문헌

- 2015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시안 검토 공청회 자료집 (임찬빈 외, 2015) ORM-2015-56-11.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모 경 환

서울대학교 교수

1. 통합사회의 성격과 구성 원리

2013년 하반기에 문·이과 융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 내용, 방법, 대입제도의 개선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된 이후 사회과에서는 『문·이과 통합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2014. 3. ~ 2014. 9.)가 수행되었다. 또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2014. 9. 24.)의 발표에 따라 총론의 취지를 반영하고, 앞서 수행된 재구조화 연구 결과를 수용하면서 통합사회 및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가 진행되었다. 1차 연구가 ‘통합사회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2014. 12. ~ 2015. 5.)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고, 현재 2차 연구(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사회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개발 연구: 2015. 5. ~ 2015. 11.)가 진행 중이다.

2015개정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 모든 학생들의 인문·사회·과학기술의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각 교과에서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엄선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한다는 것, 성취기준 그룹(영역)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이 가능하도록 학습내용의 적정

화와 교수·학습의 개선을 통한 교실수업 혁신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과목은 현재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과학과 함께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는 8단위 공통과목으로 개발되고 있다.

『문·이과 통합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의 최종보고서(구정화 외, 2014)에는 통합사회의 “방향”에 대한 기술에서 통합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p.136). 첫째, 통합사회는 모든 고등학교의 공통 필수이수 과목으로 장차 수능 필수과목이 될 수 있다. 둘째, 윤리, 지리,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되, 세계사를 고려한 통합단원을

구성한다. 셋째, 주제별로 제시된 핵심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내용과 더불어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넷째, 통합의 방법에 대해서는 단순 통합을 지양하며, 단원 내에서 하나의 주제에 여러 관련 교과와 내용이 통합적으로 포함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통합사회 구성의 기본원리에 따라 앞서 언급한 『재구조화 연구』에서는 12개의 대주제를 설정하고 각 주제에 대한 지리, 일반사회, 역사, 윤리 등 4개 영역의 관점을 접목하는 구성 방식을 취하였다. 『재구조화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사회의 내용 조직과 단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p. 136-140)

〈표 1〉 통합사회 교육과정 내용구성안

단원명	핵심 질문			
	윤리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시간적 관점
1단원. 인간, 사회, 세계를 바라보는 창	인간, 사회,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			
	○인간과 삶을 바라보는 창	○ 지리로 보는 세계	○ 사회현상의 탐구	○ 시대와 인간
2단원. 행복한 삶	행복한 삶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삶의 목적과 행복 ○ 동서양의 행복론	○ 행복의 지리	○행복한 삶과 민주주의	○‘행복’ 개념의 역사
3단원. 자연환경과 인간	자연 환경과 인간의 삶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 ○환경변화와 자연재해	○경제개발과 환경보호	○ 환경재난과 문명

단원명	핵심 질문			
	윤리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시간적 관점
4단원. 생활공간과 사회	변화하는 생활공간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생활공간의 변화와 윤리	○생활공간의 변화와 특성	○생활공간 변화와 사회문제	○사회의 변화와 생활공간/환경의 변화
5단원. 인권과 준법 의식	인권은 어떻게 확장되어 왔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정치적 의무와 시민불복종	○ 환경과 인권	○헌법의 의의와 원리 ○기본권의 보장	○인권과 헌법의 역사
6단원. 시장경제	시장 경제는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본주의와 시장의 윤리	○경제활동의 지역구조	○시장과 정부 ○세계시장과 국제 경쟁력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
7단원. 정의와 사회 불평등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서양의 정의론	○불평등한 지리공간	○불평등한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	○정의를 향한 길
8단원. 인구와 인구 문제	인구 변화의 특징은 무엇이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세대 간의 정의와 미래 세대	○ 인구의 지리적 특성	○현대사회와 인구문제	○사회변화에 따른 인구 변동사
9단원. 문화와 문화권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은 무엇이며 문화 다양성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			
	○문화와 윤리	○문화권의 형성과 이해 ○세계문화권	○문화의 다양성과 다문화사회	○문명의 탄생과 충돌
10단원 세계화와 국제 협력	세계화는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세계화와 윤리	○ 세계화와 지역화	○세계화시대의 국가와 시민	○세계화의 원인과 전개

단원명	핵심 질문			
	윤리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시간적 관점
11단원. 평화와 공존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과 분쟁 속에서 평화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			
	○평화와 공존의 윤리 ○전쟁과 평화	○ 세계의 분쟁과 갈등	○국제분쟁과 세계평화	○국제분쟁해결의 역사
12단원.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상사회와 미래 지향	○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법과 제도	○ 미래를 향한 역사

요컨대 통합사회는 위에서 논의한 과목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시간적, 지리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에서 21세기 민주시민의 양성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적 내용을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고 (예: 인권은 어떻게 확장되어 왔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서 선정된 12가지 질문에 대하여 단원명을 설정함과 아울러 네 가지 관점에 따라 각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2. 통합사회의 내용 체계

‘통합사회’ 과목의 ‘성격’은 “학생들이 중학교 사회/도덕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인

간,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 자연환경 등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와 관계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목이다.” 그리고 통합사회는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개인의 삶, 개인의 삶을 둘러싼 환경과 공동체, 변화하는 사회 및 미래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통합사회를 통해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핵심역량은 1)비판적 사고력 및 창의성, 2)문제해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3)자기 존중 및 대인 관계 능력, 4)공동체적 역량, 5) 통합적 사고력 등 다섯 가지이다(박철웅 외, 2015).

이러한 과목의 성격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통합사회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은 1차, 2차 연구

를 거치면서 2015년 8월 현재 세 개의 영역, 아홉 개의 핵심개념으로 구성된 다음과 같은 <표2> 내용체계를 수립하였다.

3. 통합사회 교과서 개발의 방향

교과로서의 사회과(social studies)의 본질이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기 위해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통합교과(integrated study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로 탄생하였음을 고려하건대, 2015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이야말로 21세기 민주시민을 길러내는데 중핵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사회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통합사회의 특성이 인문·사회적 소양 육성을 위하여 통합적으로 구성된 과목이라는 점과 대입 수능 과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통합사회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21세기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문·사회적 기본 소양을 아홉 개의 핵심개념으로 선정하고, 이를 학습하기 위

하여 시간적, 지리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핵심개념에 따른 각 성취기준은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각 영역에서 균등하게(1/n) 내용 요소를 병렬적으로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개념을 학습하기 위한 내용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조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을 요약하거나 주제별 주요 내용요소를 중학교에서 가져와 단순 삽입하여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통합사회는 8단위 공통과목이며, 대입 수능 과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각 핵심개념을 위한 내실 있는 내용 요소의 학습과 학생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활동형 수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함의하고 있다. 즉 교과서의 서술양식을 설명형과 활동형 또는 내러티브형을 자유롭게 취하되, 필수적인 내용 요소는 설명형 위주로 기술하고, 활동 부분은 탐구형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지식 중심의 교과서를 탈피한다는 것은 지식 ‘위주’의 구성을 지양한다는 것이지 지식 요소를 무시한 다거나 활동 지상주의를 채택한다는 것은 아니다.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고차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지식, 이해 등의 저차사고력을 기초로 사고의 확장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설명형 서술양식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표 2〉 통합사회 내용체계표

(2015. 8 현재)

영역	핵심 개념	내용(일반화)	주요 내용요소	기능
삶의 이해와 환경	행복	-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도덕적 실천 등을 통해 인간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을 실현한다.	- 통합적 관점 - 행복의 조건	파악하기 설명하기 조사하기 비교하기 분석하기 제안하기 적용하기 추론하기 분류하기 예측하기 탐구하기 평가하기 비판하기 종합하기 판단하기 성찰하기 표현하기
	자연 환경	- 자연환경은 인간의 삶의 방식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대응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 자연환경 - 자연관 - 환경 문제	
	생활 공간	- 생활공간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나타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 도시와 촌락 - 산업화 - 정보화	
인간과 공동체	인권	- 사회제도적 장치와 의식적 노력이 근대 시민 혁명 이후 확립되어 확장되어온 인권을 보장한다.	- 시민 혁명 - 인권보장 - 인권 문제	
	시장	- 시장 경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하며, 경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 가격 기구 - 금융 설계 - 국제 분업	
	정의	- 정의의 실현과 불평등 현상 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이 요구된다.	- 정의의 의미 - 사회 불평등	
사회 변화와 공존	인구	- 인구 특성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인구정책과 세대 간 정의가 요구된다.	- 인구 변화 - 저출산·고령화 - 세대 간 정의	
	문화	- 문화의 형성과 교류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권과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문화인식태도가 필요하다.	- 문화권 - 문화 변동 - 다문화 사회	
	세계화	- 세계화로 인한 문제와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협력과 세계시민의식이 필요하다.	- 세계화와 지역화 -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 평화	

또한 통합사회 과목의 특성에 비추어 교과서 개발 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인문·사회 여러 영역 간의 유기적인 통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어야 한다. 각 성취기준과 관련된 소재를 선정함에 있어서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인간, 사회, 자연과의 연관 속에서 폭넓은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둘째, 통합사회의 궁극적 목표인 민주시민의 양성을 위해서 각 핵심개념과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과 사고력, 가치·태도의 조화로운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특히 통합사회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핵심역량의 함양을 위해 적절한 교수·학습 활동의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단원의 구조가 융통성과 창의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해당 핵심개념이나 성취기준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원 구성이나 본문 제시 방식, 성취기준 당 페이지 수 등을 내용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결정할 경우 이는 창의적인 구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구정화 외(2014). 『문·이과 통합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교육부
- 박철웅 외(2015). 『2015개정 통합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교육부

필자소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주요 저서로는 사회과교육, 사회과 교직실무, 사회과 창의인성 수업, 다문화 교육론 등이 있다.



과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곽 영 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교육부는 올해 9월 고시를 목표로 2015개정 교육과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진로 및 진학 경로를 막론하고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 및 과학탐구실험을 신설한다는 점이다. 이 중 과학탐구실험을 제외하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모든 학생들이 치러야 할 수능시험 대상 과목이 될 수도 있다. 기존 2009개정 교육과정의 융합형 ‘과학’은 과학과 진로 선택과목인 ‘융합과학’으로 승계된다.

본고에서는 현재 연구개발 중인 통합과학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취지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통합과학 교육과정 개발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통합과학 교육과정은 ‘모든 이를 위한 과학(Science for All)’으로 과학적 소양 함양 및 탐구 방법 습득을 위한 공통 필수과정으로 운영하며,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창의·융합형 인재 교육이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는 새 교육과정 개발”하여 기존 분과학문적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창조성과 인

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려는 교육이다(교육부, 2014).

이렇듯 창의·융합 인재 교육이 강조되는 까닭은 최근에 이르러 근대 분과학문적 지식은 자연과 인간, 지식과 삶,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가져왔고, 기술공학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 사회의 도래,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변화 등과 같은 사회 변화로 말미암아 근대 분과학문적 지식은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학문들과 사고틀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들을 이해하려면 다양한 학문 간의 융합적 사고와 관점을 필요로 한다. 즉, 21세기에 인류가 당면한 복잡한 문제들은 각 개별 학문들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면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및 분야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융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2015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 통합과학에서 지향하는 ‘통합’의 의미는?

왜 이제와 새삼 ‘공통과학’도 아니고 ‘융합

형 과학’도 아닌 통합과학이라는 과목명을 다시 필요로 하는 것일까? 통합과학은 기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분과적으로 합본해놓았던 ‘공통과학’과 차별화하면서도 현대과학의 모든 성과들을 집대성해놓았던 2009개정 교육과정의 ‘융합형 과학’과도 거리를 두고자 한다. 통합과학에서 ‘통합’을 구현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2009개정 교육과정 융합형 ‘과학’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과학에 대한 기본적 소양 함양을 위해 배경지식의 토대 위에 통합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가급적 새로운 개념 도입을 줄이면서, 중학교까지 배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기본 개념을 토대로 통합적 개념 적용과 문제해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구성하였다.

둘째, 과학적 기초소양 함양이라는 관점에서 진로 및 진학 경로를 막론하고 학생들이 과학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학습량을 적정화하였다. 통합과학에 할당된 시수의 80%만큼의 내용량만 제시함으로써 학생 참여와 활동 위주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였다.

셋째,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두어 영

역을 엮어서 하나의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개념을 선정하고 물리, 화학, 생물 및 지구 과학의 관련 내용을 연계하여 성취기준을 진술하였다.

요컨대 통합과학은 ‘모든 이를 위한 과학’을 지향하며, ‘핵심개념’과 ‘핵심역량’으로 대변된다.

3. 핵심개념이란?

통합과학 교육과정은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융합형으로 개발하였다. 여기서 핵심개념이란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의 세부 사항을 잃어버린 후에도 지속되길 원하는 개념을 가리킨다. 핵심개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핵심개념이란 특정 학문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학문을 아우르는 개념 혹은 원리로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다. 즉, 핵심개념은 분과적인 주요 개념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다양한 과학적 현상뿐만 아니라 과학외의 다른 분야(교과)와 연계된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핵심개념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의 다양한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2015개정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목적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개념 구성의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과학을 왜 배우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통합과학에서 선정한 핵심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통합과학의 핵심개념

영역	핵심개념
물질과 규칙성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자연의 구성 물질과 기원
시스템과 상호작용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변화와 다양성	화학변화
	생물 다양성과 유지
환경과 에너지	생태계와 환경
	핵발전과 차세대에너지

예컨대 시스템이라는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에서 단편적으로 배우는 개념들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핵심개념은 우리의 실질적인 사고방식이기도 하며, 학생들은 핵심개념을 활용하여 과학을 이해함으로써 모든 과학 분야에 내포된 일정한 패턴을 학습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융합형 ‘과학’에서 현대과학의 주요 성과를 대변하는 개념들을 망라하였다면, 2015개정 교육과정 통합과학에서는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은 물론 타(他)교과 및 삶 자체와 맞닿아있는 핵심개념을 통해 자연과 문명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4. 핵심역량이란?

통합과학을 비롯하여 2015개정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에서는 ‘교과 역량’을 반영하여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여기서 교과 역량이란 해당 교과 학습의 결과로서 할 수 있도록 기대되는 핵심역량을 가리킨다. 여기서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이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인간이 갖추어야 할 전반적인 능력으로,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을 포괄한다. 핵심역량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될 수 있는 능력이며, 초·중등 학교교육을 통해 누구나 길러야 할 기본적으로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즉,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 함양이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중요한 방향임을 총론에 명시할 뿐만 아니라, 교과별로도 핵심역량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왜 핵심역

량이 강조될까? 일각에서는 근대 분과학문적 지식 중심 교육의 한계로 인하여 최근에 ‘역량 중심 교육’이 강조된다고 말한다. 즉, 분과학문적 지식 중심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역량 중심 교육이 시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학교교육을 과학, 사회, 수학 등과 같은 다양한 ‘지식의 형식’으로의 입문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삶에 필요한 기술로 대변되는 다양한 ‘사회적 실재’로의 입문으로 학교교육을 재규정하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즉,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강조되는 타인에 대한 배려,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총론에서는 ‘일반 역량’으로 자기관리능력, 공동체 의식, 의사소통능력, 창의·융합 사고능력, 정보처리능력, 심미적 감성능력 등을 제안하였고, 과학과에서는 ‘교과 역량’으로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5. 과학 교과용 도서 개발 방향은?

현재 중·고등학교 과학 교과서는 인정도서 체계이다. 현행처럼 과학 교과서가 인정도서일 경우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설출판

사의 교과서 집필진이 그 뜻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교과서를 집필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을 신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여러 곳의 사설출판사가 인정도서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경쟁력 있는 내용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기 다른 교과서들의 잘 구성되고 서술된 단원을 조합하면 인정도서 체제의 약점을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검정도서 체제와 비교할 때 인정도서 체제의 경우 교과서 내용의 범위와 수준, 내용 오류 등에 대한 검증이 비교적 느슨하게 이루어지거나, 교과서의 질보다는 다양성이 더 강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달리 말해서 출판사나 집필진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구성을 장려하다보니 때로는 교과서 내용의 정확성과 구성 등과 같은 질적 측면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수능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수준 시험 출제가 교과서에 준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제 때 몇 개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일거리가 되었고, 어느 한 교과서라도 관련 내용 진술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출제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해당 교과서로 공부한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서를 집필할 때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다루는 순서를 비롯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업성취도 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 등과 같은 일제고사에 대비하여 진도를 맞추어야 하므로, 실제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과서를 집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출판사를 막론하고 내용 제시 순서나 교과서 내용 전개가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어도 수능 대상 과목만큼은 검정체제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예컨대 2015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과목의 경우 진로와 진학 계열을 막론하고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고 시험을 치러야 할 수능 필수 과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과학 교과서를 검정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수능 출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의 수준과 범위에 맞추어 검정기준을 마련하고, 검정체제를 통해 출판된 교과서를 기반으로 수능출제를 할 경우 교과서 내용 범위나 서술 오류로 인해 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과학 교과서를 인정에서 검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을 구속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교과서 집필진의 창의적 내용구성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적극 장려해야 할 것이다. 획일화된 검정 교과서로 인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교수학습을 해서는 곤란하다. 학생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핵심 성취기준을 준수하는 한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놓고 학생의 특성 및 학교의 특수성에 가장 부합하는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있도록 선택의 장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과학을 비롯하여 모든 교과에서 핵심개념과 핵심역량이 강조되므로, 이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교과서 구성이 요청된다. 즉,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과학과 개념 구성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과서 집필진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과서를 집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통합과학의 ‘시스템과 상호작용’이라는 영역은 다시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교과서 집필진에 따라 지구 시스템에서 출발하여 지구 시스템의 작동 과정을 역학적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각 생명의 단위인 세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는 스토리라인을 따라 교과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일정한 질서를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지속성을 유지하는 체계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서 출발하여, 이러한 시스템의 사례로 작게는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로부터 크게는 태양계 혹은 은하계나 우주를 포괄하는 지구시스템까지 다양하다는 스토리라인을 따라 교과서를 집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여러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핵심개념의 특성을 살려서 과학적 현상과 개념을 관통하는 다양한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과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핵심역량의 경우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과학 내용을 가르치되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형태로 가르치고 배우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학 내용(지식)과 기능을 조합하여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기능(skills)이란 과학과 교과 역량을 구체화한 것으로, 학생들이 학습한 과학내용 지식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결국 핵심역량 구현 방법도 교과서를 통해 예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교과서 집필진이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요컨대 수능 필수 과목이 되는 통합과학을 비

롯하여 수능 출제 대상이 되는 과학 과목 교과서의 경우 검정과 인정 체제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인정체제가 아니라 검정체제만으로도 다양성의 확충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으며,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다만, 검정과정, 교과서 채택 과정 등과 같은 시스템을 정비하여 올바른 검정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검정교과서의 원활한 검정 및 채택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

필자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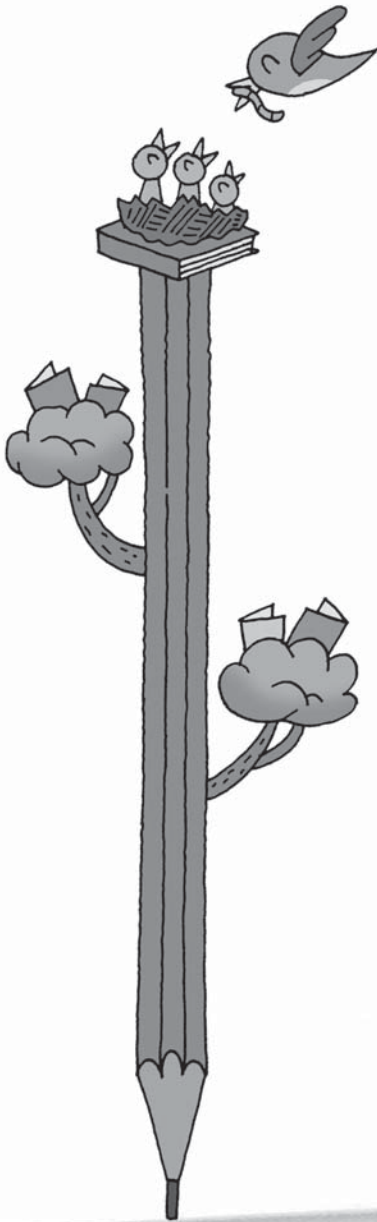
과학교육을 전공하였고 박사학위 취득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2002~현재)

참고문헌

- 교육부 [동정자료] 교육부 장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참석(2014.04.1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2015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진 합동 워크숍(4차).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용도서 개발체제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



김 대 원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장학관



교육부는 지난 7월 30일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교과서 개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 방안은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을 위해 국·검·인정도서별 집필 및 심사 체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교과서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새 교과서의 개발 방향 및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발 방향

교육부는 2009개정 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미

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14년 9월에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한바 있으며, 새로운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오는 9월말에 개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2009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기본 정신을 유지하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개발함에 있어 학습자가 쉽게 배우고 즐겁게 학습 할 수 있는 양질의 교과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 학생 참여 중심의 풍부한 학습활동을 통해 핵심개념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과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 사례 경험과 이어져 있어서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교과서, 학습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생활에 적용해 보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과서로 개발하고 활용하여 배움이 즐거운 교실 수업으로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교과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교육부가 발표한 ‘교과용도서 개발체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용 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편찬, 심사 방법 등을 개선하는 한편, 교과서 사용의 자율성은 높이고 교과서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 국정도서 현장 검토 방식 개선

현재 국정도서는 초등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및 통합교과에서 개발되고 있다. 초등학교 국정도서는 학교 현장에 적합한 최적의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험본을 개발하여 현장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실험본의 내용, 사진, 삽화 등 오류 및 윤문 등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연구학교에서 실험본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행 교과서와 새 교육과정의 실험본을 동시에 적용함에 따른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실험본’이라는 명칭을 ‘현장검토본’으로 변경하여 학생들이 실험 적용 대상이라는 부정

적 시각을 해소하는 한편, 현장검토본 개발 과정에서 감수와 심의를 강화하여 내용 오류를 최소화하고 표현·표기의 정확성 등에 대한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현행 연구학교 중심의 현장검토 방식을 개선하여 기존 연구학교 외에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된 우수 교사연구회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 학교 규모 등 다양한 교사들이 검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적합한 교과서로 개발하고, 교과 관련 전문기관의 책임 있는 전문가 검토를 추가하여 내용 오류가 없는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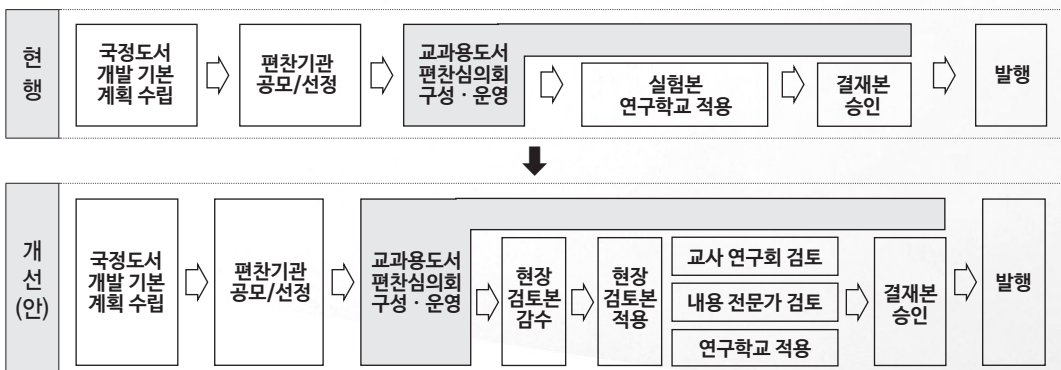
나. 검정도서 심사 체제 강화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검정심사를 합격한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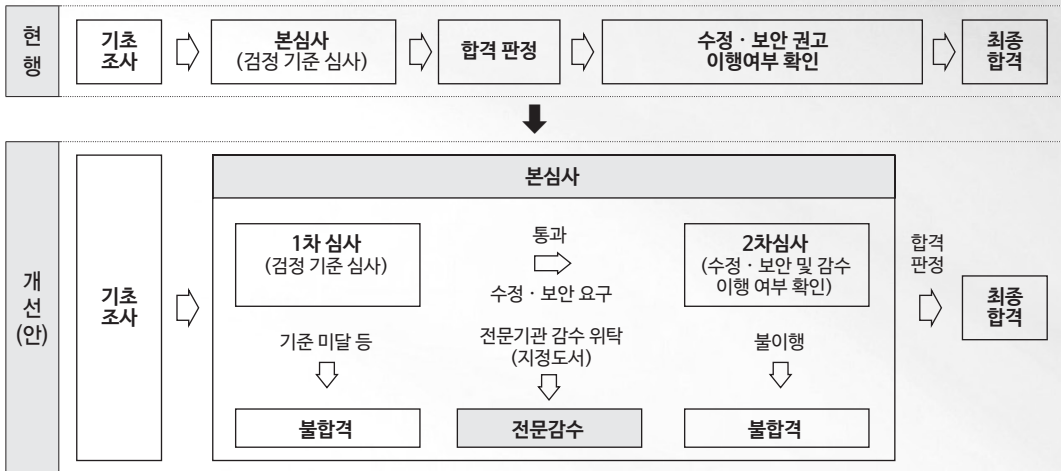
보완을 권고하고 있으나 수정·보완이행에 대한 구속력이 부족하고, 검정공고 후 짧은 집필 및 심사기간의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심사의 엄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심사를 1차와 2차로 구분하고, 1차 심사를 통과한 도서를 대상으로 2차로 수정·보완 지시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합격 판정하도록 검정심사 절차를 개선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용 등에 대한 전문가의 면밀한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도서는 전문기관에 감수를 위임·위탁하여 오류 없고 균형 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검정도서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필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리고, 전 과목을 일시에 집필하고 한꺼번에 심사함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년과 학기가 구분되는 교과서는 연차적으로 심



[그림 1] 국정도서 현장적합성 검토 방식 개선



[그림 2] 검정 심사 절차 개선 방안

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무의 지속성,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 인정도서의 확대 및 개발 체제 개선

국정도서를 줄이고 검·인정도서를 확대하여 교과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정책이다. 특히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이후 인정도서를 대폭 확대하여 현재 인정도서의 비율이 초·중·고 교과용도서 전체의 84%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단위의 개발도서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낮은 집필 및 심의진으로 구성되어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집필 및 심사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안정적인 개발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시·도교육청의 인정도서 담당자의 업무 과중과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

따라서 인정도서의 집필 및 심의진을 지역단위에서 전국단위 인력풀로 확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 및 현장 실무 경력이 높은 전문 인력의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집필 및 심사기간을 확보하며 심사절차를 검정도서에 준하여 개선함으로써 질 높은 인정도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인정도서의 범위가 교과목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 비교과 및 범교과 활동에 사용되는 도서도 인정 승인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시·도에서 실제로 인정 승인이 이루어지는 등 혼란스러운 상태이며, 인정도서를 국가 수준 교육과정 교과목과 그 외의 교과목으로 구

분하여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 등이 이원화되어 교육청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교과서 개발이 필요 없거나 사용의 자율성이 필요한 교과목까지 인정도서로 구분하고 있고, 제7차 교육과정부터 적용된 ‘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의 용어나 대상도 모호하여 활용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 승인 하던 것을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제 등 비교과 활동에서 필요한 도서도 학교장이 인정 신청을 하여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과서의 자율적 사용이 요구되어 과거 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로 구분하였던 과학, 체육, 예술계열 전문 교과목 등의 일부는 국·검·인정도서 구분에서 제외하여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개발, 선정·사용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였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개발한 학습자료를 인정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정도서의 활용성을 높이고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라. 교과용도서 개발 지원 강화 및 가격 안정화

이번 개선 방안에는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외에도 교과용도서의 질 관리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상시 수정·보완 체제에 따라 교과서의 질 관리가 이루어져 왔으나 수정·보완에 대한 이력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중복 및 누락 등이 나타나고 학교 현장에 안내되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교과서 개발에 앞서 개발 주체인 출판사, 집필진, 심의진 등을 대상으로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방향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수를 실시하여 개정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교과서 개발 정책 방향에 알맞은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교과용도서 수정·보완사항 DB를 온라인으로 자동 누적 관리하고 상시 안내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교과서 가격자율화 이후 교과서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요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교과목별 가격 편차가 커져 교과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가격조정 명령 처분을 내렸으며, 출판사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교과서 자율가격제’와 ‘가격조정명령제’를 폐지하고,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여 교육부에서 학교급별, 학년별 교과목별 최고가격을 고시하면, 출판사가 최고가격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과서 가격을 정하도록 하였다.

3. 새 교과서 개발을 위한 향후 과제

이상 살펴본 교과용도서 개발체제 개선 방안의 적용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도 많다. 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나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법령을 개정해하며, 각 과제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야 한다.

특히,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해 학교급별·교과목별 교과서 개발 및 활용 특성을 고려한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및 새 교육과정 적용 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에 착수하고, 개정 교육과정과 새 교과서 개발 방향에 적합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 출판사, 집필진, 심의진 등을 대상으로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 새 교과서 모형 적용, 집필 요령, 개발 및 심의진의 역할과 심의 방법, 저작권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수를 진행하는 등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갈 것이다. ~~~~~

필자소개

교육부 교육연구사와 교육연구관을 역임하고,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서 교감과 교장을 거쳐 지금은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의 장학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국가 교육과정 기획, 관리 업무 및 음악과 편수담당관을 지냈으며,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관련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핵심 성취기준 중심의 과학 교과서 시범 단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임 유 나

전 서울금산초등학교 교사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시대적, 사회적, 학문적, 학습자의 요구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변화해 간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에 담은 교과서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가는 교과서의 모습일까? 2013년 박근혜 정부는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주요 과제로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

서 완결 학습 체제 마련’을 발표하였다. 이는 현행 교육과정을 토대로 한 핵심 성취기준의 개발, 자기주도적 학습 등을 유도하기 위한 교과서 개선 및 지원 강화, 서책형 교과서와 연계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핵심 성취기준을 먼저 선정하였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교과서, 핵심역량(성취기준) 중심의 교과서,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개발할 때에 참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 성취기준 중심의 교과서 시범 단위’¹⁾를 개발하였는데, 시범 단원은 “실생활 중심의 핵심 성취기준에 따라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것,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의 형태가 되도록 하고 풍부한 평가 문항을 포함하여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로 개발할 것” 등을 개발의 방향 및 목적으로 하였다(교육부, 2014b).

교과서가 수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위에서 언급한 교과서 개발의 여러 방향이 ‘교과서’라는 하나의 교수·학습 자료로 구현되었을 때에 상호 조화로운 모습으로 존립할 수 있다면,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수월하고도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기에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되어 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기 전에 교과서 관련 정책들이 온전히 상호 조화롭게 구현되

기에 알맞은 성격의 것들인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과별로 교육의 목적,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과별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교과서의 형태는 어떠해야 하는가가 교과서 개발 논의의 중심에 설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과학 교과서 시범 단원을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참고서가 필요 없는 완결형 교과서’, ‘핵심 성취기준/핵심역량 중심의 교과서’, ‘교과의 목표 및 특성에 알맞은 교과서’ 개발의 방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²⁾

1. ‘참고서가 필요 없는 완결형 교과서’로서의 과학 교과서

현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은 참고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면 상급학교 진학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아이디

1) 시범 단원은 국어, 도덕, 사회, 역사, 수학, 과학, 영어의 7개 교과에 대해 초등 5-6학년군 1개 단위, 중학교 1-2학년 1개 단원이 개발되었고, 명칭은 ‘핵심 성취기준 중심의 교과서 시범 단위’로 발표되었다. 본고의 제목은 이를 따른 것이다.

2) 이 글은 임유나·조은영·홍후조(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어이다. 또한 교과서 완결 학습을 위한 교과서는 학생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정보를 찾고 터득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김재춘, 2013).

그러나 개발된 시범 단원은 기존 교과서에 비해 더 많은 참고자료나 연습문제를 담고 있지는 않았다. 교과서 정책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사교육비 경감에 있다면 과학 교과서는 많은 자료를 제공하는 참고서이자 과학적 개념 확인이 가능한 문제집의 기능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식 증가의 속도가 폭발적인 과학 기술계에서 교과서가 제공할 수 있는 읽기자료나 참고자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며, 이렇게 제공되는 자료들이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을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탐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과학 교과서가 문제집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면 문제의 내용, 분량,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충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시범 단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요소가 가장 많이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스스로 해 볼까요?’라는 학습의 마지막 단계에는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을 두 가지 더 제시하고 있는데, 준비물과 활동 과정을 모두 안내하고 있어 학생들이 따라하면 활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추가적인 탐구활동을 제시하는 것은 탐구활동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매뉴얼식의 탐구활동 제시가 얼마나 과학 목표 달성에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과학적 지식, 기능, 태도는 학습자 주도의 능동적인 학습 활동으로부터 신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과에서의 탐구활동이 학습자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해결 방법을 설계해보고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를 지향한다면, 설명서에 따라 여러 개의 탐구활동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탐구활동이라도 학습자가 활동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형태가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가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련 지식과 정보를 찾아 읽고, 여러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보며, 또 다른 의문을 얻고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선순환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학습은 혼자 하는 학습보다는 협동적 프로젝트 학습과 같이 여럿이 함께 하는 학습의 형태가 더

욱 유리하다. 과학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활동을 경험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의미 있는 탐구활동을 경험하느냐를 중심에 둘 필요가 있다.

2. ‘핵심 성취기준/핵심역량 중심의 교과서’로서의 과학 교과서

기존의 성취기준에서 핵심 성취기준을 다시 선정한 것은 교과교육 내용의 적합성과 학습 부담의 적정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고서가 필요 없는 완결형 교과서’ 개발 정책과 맞닿아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 형태로 구성된 교과서는 충분한 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학습자에게 학습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핵심 성취기준을 그 해결책으로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핵심 성취기준 중심의 교과서 개발은 학습부담 경감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개발된 시범 단원에 해당하는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의 경우에는 과학과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5개의 교육과정 내용이 13개의 성취기준으로 구체화되었고, 그 중 8개가 핵심 성취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핵심 성취기준에 의해 개발된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심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고, 핵심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 단원에 핵심 성취기준이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분석한 결과, 시범 단원은 핵심 성취기준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그 밖의 일반적인 성취기준까지도 포함하여 사실상 내용 감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었고(<표>의 오른쪽 셀), 오히려 단순한 수준의 탐구활동 개수가 늘어나 학생들이 소화해야 하는 학습량은 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핵심 성취기준 선정 자체에서 온 문제점도 있지만, 교과서 개발 형태가 핵심 성취기준 선정의 근거와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기준 간 상호연계가 더욱 긴밀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학과에서 핵심적인 개념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적정화하였다면, 참고서가 필요 없는 형태나 자기주도적 학습에 중점을 둔 교과서 개발이 목적이 되기보다는 상황이나 문제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개인 또는 소집단이 적극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이 핵심역량을 비롯한 과학과의 교육목적

<표> 2009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핵심 성취기준과 시범 단위 소주제의 범위

초등학교 5-6학년군 (8)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교육과정 내용 (학습 내용 성취기준)	성취기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별도로 개발된 성취기준)	핵심 성취기준	시범 단위 소주제
과6081. 우리 몸의 각 기관의 위치와 생김새를 안다.	과6081.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기관의 위치와 생김새를 설명할 수 있다.	✓	2, 3, 4, 5, 6, 7
과6082. 모형을 통하여 뼈와 근육을 관찰하고, 뼈와 근육의 관계와 기능을 이해한다. [탐구활동] 뼈와 근육 모형 만들기	과6082-1. 뼈와 근육 모형을 관찰하여 생김새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3
	과6082-2. 뼈와 근육 모형 만들기를 통하여 뼈와 근육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3
과6083. 모형을 통하여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감각 기관의 종류와 위치, 생김새와 기능을 이해한다. [탐구활동] 호흡기 모형을 통한 호흡운동 알아보기 [탐구활동] 자극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 알아보기	과6083-1. 모형을 통하여 소화 기관의 종류와 위치, 생김새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6
	과6083-2. 모형을 통하여 순환 기관의 종류와 위치, 생김새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5
	과6083-3. 모형을 통하여 호흡 기관의 종류와 위치, 생김새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4
	과6083-4. 호흡기 모형을 통하여 호흡 운동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4
	과6083-5. 모형을 통하여 배설 기관의 종류와 위치, 생김새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7
	과6083-6. 모형을 통하여 감각 기관의 종류와 위치, 생김새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2
	과6083-7. 자극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 과정을 탐구활동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2
과6084. 우리 몸의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감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한다. [탐구활동] 운동할 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알아보기	과6084-1. 우리 몸의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감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8
	과6084-2. 운동을 해보고 운동할 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과6085. 건강한 생활 습관과 운동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관을 원활하게 기능하게 함을 이해한다.	과6085. 건강하려면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함을 이해하고, 운동과 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	8

달성에 보다 유익할 것이다.

3. ‘과학교과의 목표 및 특성에 알맞은 교과서’로서의 과학 교과서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에서 창의성의 추구, 탐구학습의 강조는 항상 부각되어 왔다. 또한 미래형 과학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이 통·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2015개정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현대 생활과 밀접한 융합·복합적 주제의 수준을 적정화하여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양한 교과와 관련 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발의 방향으로 삼고 있는 것도(교육부, 2014a) STEAM 교육과 같은 형태가 앞으로 과학 교과서 개발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측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과 시범 단원은 수업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STEAM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탐구활동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주로 신체 기관의 모형을 만들어보는 활동에서 기술·공


학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는 있으나 제시된 활동과정이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는 수준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똑같이 만들어보는 수준이어서 의미 있는 탐구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STEAM 교육이 의도하고 있는 창의적 설계와 같은 탐구 활동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없었다.

모든 과학 수업이 STEAM과 같은 형태의 수업이거나 프로젝트 형태가 될 필요는 없지만 과학 수업 설계에 있어서는 ‘탐구’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하고, 교과서 역시 탐구가 중심이 되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STEAM과 같은 통합교육이나 탐구형 수업은 학교나 교사의 의욕과 노력, 역량에 따라 수행 여부나 정도, 수준의 많은 부분이 좌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활동들이 그러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먼저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이 적정화를 이룬 후, 주제나 상황 중심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 활동을 계획하고, 학생간 상호작용을 통한 협동·협력적 프로젝트 학습이 가능한 형태의 교과서가 개발된다면 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탐구 능력, 태도의 과학적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많은 정보를 암기하여 축적하는 것을 학습으로 여기게 되면 학교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많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길 것이다. 이런 경우, 참고서가 필요 없을 만큼 많은 정보가 담긴 교과서가 학교 수업에서 필요하고 좋은 교과서로 인식될 것이다. 그러나 지식이 폭발적으로 창출되는 시대에는 많은 지식을 가르치려는 교육은 환영받지 못한다. 특히 과학, 기술과 같이 학문 발전의 속도가 빠른 교과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알고 기억하는 것은 지식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이범홍 외, 2005) 과학 교과서 하나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교과서를 만들어 주고, 따라하면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매뉴얼화 된 실험을 수행한다고 하여 학생들이 과학적 지식을 의미 있게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학습한 지식은 문제해결 상황이나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없다. 또한 과학에서 학생들을 지나치게 문제풀이식 학습에 매달리게 하는 것도 과학적 기능, 태도, 창의성 신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물론 사회교과와

같이 많은 참고자료를 제공하면 좋은 교과서와 수학교과와 같이 많은 연습 및 평가 문제를 제공하면 좋은 교과서도 있다. 그러나 과학 교과서 구성에 있어 ‘참고서가 필요 없는 완결형 교과서’의 방향은 조금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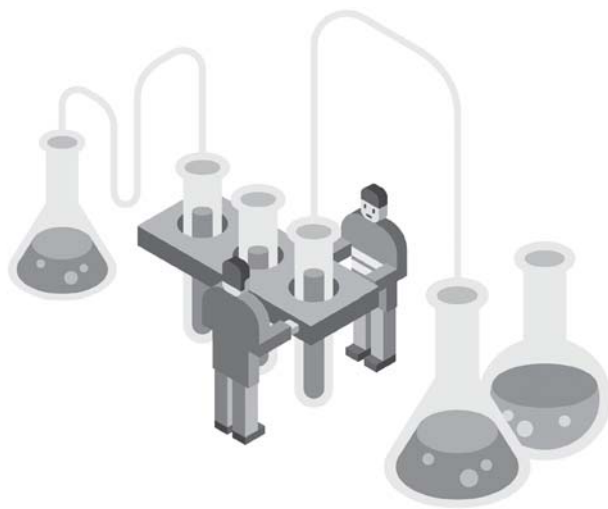
교과서는 이미 친절하다는 의견과 학생 스스로 학습 가능한 자기 완결형 교과서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중앙일보, 2013.04.25).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은 평생학습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학 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길러 주고자 하는 핵심역량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학 교과서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아닌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습, 학생의 수행이 중심이 되는 탐구학습을 강조하고, 프로젝트 학습이나 협동학습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한 탐구과정, 토의, 토론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 교과서 개발 방향이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래형 교과서 개발의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민되어야 하는 것은 각 교과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과 특성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4a).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 2014년 9월 24일 발표.
- 교육부(2014b). 핵심역량 중심의 교과서 모형개발에 따른 시범 단위 개발 및 적용 계획(안). 2014년 3월 12일.
- 김재춘(2013). 특별기획 I -특별좌담회,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 연구의 방향. 교과서 연구, 71. pp. 7-15.
- 이범홍 외(2005). 과학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5-7.
- 임유나·조은영·홍후조(2015). 핵심 성취기준에 따라 개발된 과학 교과서 시범 단원의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5(6). pp. 389-412.
- 중앙일보(2013.04.25.). 교과서 이미 친절 ... 100% 활용 막는 입시부터 개선해야.

필자소개

서울금산초등학교 교사. 서울교대 초등과학교육 전공으로 석사학위 취득 및 고려대 교육과정학 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교과서, 과학 수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음.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교과서 집필 경험에 대한 기술

1. 들어가며

나는 2011년 10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 2학년 통합교과용 도서 개발 과정에 집필자로 참여하였다. 교과서를 집필한다는 것, 특히 국정교과서를 집필한다는 것은 여느 도서 개발 과정과는 달리 다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집단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교과서 집필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 집필자가 교과서를 집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더 풍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 만약 이 이야기들을 이 지면을 통해 다 끄집어낸다면, 독자들은 교과서 집필 과정의 다각적인 측면을 접해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교과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수 없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2015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라는 주제에 걸맞게, 교육과정과 교과서와의 관계에 집중하여, 교육과정이 교과서로 어떻게 변환되는지에 더 초점을 두되, 그 사례를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교과용 도서로 한정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김 세 영

경기 매탄초등학교 교사

2.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교과서 집필 과정

교과서를 집필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교육과정을 교과서로 구현·변

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개발자들에게 교육과정이란 교과서 집필에 있어서 처음에서 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이 ‘기준’을 변질하지 않고 교과서로 잘 구현해내는 것이 교과서 개발자의 주된 임무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기 때문에 교과서 집필자의 무한한 사고를 통제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준’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과정은 그 자체가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틀만을 제공하는 것이며, 기준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그 양상은 달라지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에 비추어보면,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 교과용 도서 개발은 교육과정의 이러한 서로 다른 측면인 통제와 자율을 잘 버무리는 과정이었는데 교육과정에 부합하기 위해 끊임없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대조해보는 작업을 하면서도 변화된 교육환경에 걸맞은 선진화되고 참신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2009년 12월, 2009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1년 8월에 각 교과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교과서 개발의 기준이 되는 교과교육과정이 고시됨으로써 그 해 10월 1일부터 통합교과용 도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새 교과서 개발의 시작은 ‘새로운’ 것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기존의 것’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이루어졌다. 2007개정 통합교과용 도서 개발부터 기반이 되었던 연구진

들의 생각, 초등 1~2학년 교과서에 대한 철학은 ‘인간은 발달 시기에 따라 각각의 배움의 방식이 있으며, 초등 저학년에는 그에 걸맞은 배움의 형태가 있다’,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가르치는 것이다’ 등이었으며, 이에 따라 초등학교 교실에 일정한 주제가 흐르는 주제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길 연구진은 갈망했었다. 무엇보다도 시간표를 가득 채우고 있는 ‘교과’를 ‘교과’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정도는 ‘주제’로 변환된 형태로 주길 바랐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선 교실에서 현실화되기 위해 2007개정 교과서에 투영했던 것이 바른생활, 즐거운생활, 슬기로운생활을 하나의 주제로 가르칠 수 있는 ‘통합단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통합단원은 그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2009개정 통합교과용 도서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곧 2009개정 통합교과용 도서의 콘셉트 잡기와 이어졌는데 초등 1~2학년 학생의 특징과 그에 따른 배움의 형태인 ‘주제중심’이 결부되면서 2009개정 통합교과용 도서는 한 달에 하나의 주제를 배우고,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을 그 주제 안에 녹아내린 주제 교과서 형태로 그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 발표된 2009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된 특징들을 교과서의 큰 그림 속에 녹아내렸는데, 가령, 학년군의 개념, 학습 부담감의 해소,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등이 살아날 수 있도

록 교과서의 시수를 줄여서 개발하고, 그 줄인 시수를 교사가 직접 차시를 만들어 수업할 수 있게 하는 등 교과서에 일종의 장치를 마련했다.

교과서의 콘셉트가 확정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교과서 원고를 작성하는 단계가 시작되었다. 원고 작성 단계의 핵심은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교과서 차시로 구체화하는 일이다. 교과서 개발자는 자신이 집필해야 할 단원에 배당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확인하고, 그것을 40분의 수업에 알맞은 활동으로 만들어내는데 주력한다. 주지하다시피, 교과서에는 단원이 있으며, 한 단원은 여러 차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한 차시는 보통 한 시간의 수업분량, 즉, 초등학교의 경우 40분을 기본으로 하며, 이 한 차시에는 그 시간에 달성해야 할 차시의 학습목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개발자는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의 목표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교과서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먼저 교과서 개발자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하나의 성취기준을 몇 차시로 구현할 것인가를 정하게 되는데, 2009개정 통합교과용 도서의 경우, 바른생활은 1개의 성취기준을 4차시로, 슬기로운생활은 6차시로, 즐거운생활은 12차시로 구현하기로 결정하였고, 한 단원에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의 성취기준을 각각 1개씩 담기로 확정하였다. 이처럼 한 단원에 배정될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확정되고, 시수까지 결정되면 교과서 개발자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차시의 학습목표로 변환하는 작업을 시

작한다. 예를 들어, 교과서 개발 당시 나에게 주어진 단원은 「봄1」교과서에 있는 ‘봄맞이’ 단원이었고, 나와 함께 단원을 집필한 다른 두 집필자들이 배정받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 바른생활 : 봄을 맞이하여 교실과 주변을 청소하고 정리·정돈한다.
- 슬기로운생활 : 학교 주변을 살펴보면서 봄이 되어 볼 수 있는 것이나 겨울에서 봄으로 바뀐 것을 찾아본다.
- 즐거운생활 :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봄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봄 느낌이 나는 교실을 꾸민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배정받고 이를 교과서 차시로 구현하기 전에, 교과서 개발자들은 먼저 2009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특징으로부터 부여한 통합교과용 도서의 특징, 즉, ‘학습량을 경감하고, 운영의 자율화를 위해 교사가 차시를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여분의 차시를 둔다’에 부합하기 위해 개발 차시를 줄이는 작업을 하였다. 「봄1」에 ‘봄맞이’와 함께 제시되는 ‘새싹’ 단원과 협의하여, ‘봄맞이’에서는 바른생활 1차시, 슬기로운생활 1차시를 감축하고, ‘새싹’에서는 즐거운생활 2차시를 감축하기로 확정했다. 이로써 ‘봄맞이’에 배정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각각 교과서의 바른생활 3차시, 슬기로운생활 5차시, 즐거운생활 12차시로 구현하기로 결정짓고,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교과서 활동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교과서에 있는 하나하나의 차시를 만드는 작

업의 주축이 되는 것은 앞서 제시한 교육과정 성취기준이며, 이와 더불어 각 교과와 목표 또한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된다. 예를 들어, 나의 경우, 슬기로운생활의 일부를 집필하였는데 이 때 슬기로운생활의 교육과정 성취기준 뿐만 아니라 슬기로운생활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 슬기로운생활

- 목표: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
- 알아야 할 것: 주변 모습, 주변 관계, 주변 변화
- 할 수 있어야 할 것: 살펴보기, 무리 짓기, 조사·발표하기, 모형 만들기, 흐름 만들기, 관계망 그리기

슬기로운생활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슬기로운생활에서 제시하는 알아야 하는 것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구체적인 탐구활동 속에서 실현하면서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기에, 슬기로운생활에서 제시하는 목표 또한 교과서 차시 안에서 녹아내려야 했다. 따라서 슬기로운생활의 ‘목표’라는 큰 지향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이라는 목표점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교과서 차시를 구현하였는데,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경우 그 의미를 유지하되 초등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량으로 바꾸는 것에 주력하였고, 목표의 경우 활동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봄맞이’의 슬기로운생활 차시의 경우, 위에 제시된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1) 봄의 모습을 살펴보고, 비슷한 것끼리 모아 본

다(3차시), 2) 봄이 되어 달라진 것을 살펴보고 관심을 갖는다(2차시)로 변환하였는데,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내용을 준수하면서도, 슬기로운생활에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들인 ‘무리 짓기’와 ‘살펴보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차시에 탐구활동으로 제시하였다.

차시의 학습목표가 정해지고, 주요 탐구활동도 정해지면 그 때부터는 차시를 구성하는 교과서 개발자의 상상력이 필요하게 된다. 교과서 개발자는 차시의 학습목표에 맞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구상하는데, 이것은 문제 상황, 텍스트, 이야기, 그림, 활동 등으로 표상된다. 예를 들어, 문제 상황의 경우, 문제가 발생한 어떤 상황을 주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하며, 또는 이야기의 경우, 학습목표와 밀접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이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학습목표를 생각하고 이에 대해 말하게끔 안내한다. 이처럼 차시의 학습목표를 교과서 지면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은 교과서 개발자의 교육에 대한 경험과 상상력이 가장 많이 표출되는 작업이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교과서 차시로 변환되고, 그 차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교과서 지면을 가득 채우게 되면 교과서는 일차적으로 완성된다. 물론, 그 뒤로 교과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단계가 다양한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교과서 수정’이 아닌 ‘교과서 집필’에 집중한다면, 교육과정이 교과서로 변환되는 과정은 대략 위의 순서라 볼 수 있다.

3. 나가며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과서와 교육과정은 사실 불가분의 관계이며, 2009개정 통합교과용 도서라는 단 일회성의 경험이었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교과서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중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교과서 작업에 있어서 교육과정은 교과서 개발자가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있어 너무나 멀리 나아가거나 혹은 변질할 수 있는 경우를 잡아줄 수 있는 한계의 역할을 하며,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곧 교과서 차시의 학습목표로 전환되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 그 자체라 해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적정화된 내용의 교과서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 내용의 최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과서 개발자의 주된 임무는 앞서 말했듯이 교육과정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그것이 잘 드러나게 교과서로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탄탄하게 제시될 때 교과서도 그 내용의 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계에 있어서 교육과정을 교과서로 변환한 그 ‘교과서’는 특정 교과서 개발자의 눈으로 써내려간 일종의 ‘표준’이라는 것이다. 교과서는 ‘일정한’ 교육 경험을 지닌 ‘일부’ 교과서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사용하는 일선의 교사들은 그들의 주 교육 자료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과정’으로 눈을 돌렸을 때, 교과서 개발자들이 수행했던 것처럼 직접 그들이 교과서 개발자가 되어 그들의 학생과 교육 환경에 맞

는 그만의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게 된다. 교과서 개발자들이 그들의 교육적 상상력에 따라 교과서 활동의 표상 방식을 정했듯이, 오랜 경험을 쌓은 교사들 역시 그들에게 맞는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 때 그들이 가르치는 학생의 능력에 맞게 교육활동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은 한계와 자율이라는 양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에, 교사들은 교과서를 넘어 교육과정 단계로 들어설 때, 교과서 운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더 큰 자율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가 아닌 교육과정 중심으로’, ‘교육과정 중심의 운영’ 등의 말들이 일상어처럼 들려오고, 교사의 교육과정 사용 능력이 부각되는 이 시점에서, 나는 무엇보다도 모든 교사들이 교과서 개발자의 역할을 해보길 기대하며, ‘교과서 개발자’라는 역할이 일부 교사나 교수, 교육 전문가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2015개정 교육과정이 교사에게 더 친숙한 문서로 개발되도록, 또한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교육과정과 더 밀접하여 교사들 대부분이 교과서를 통해 교육과정을 알게 되고, 그에 따라 교육과정의 한계와 자율을 누릴 수 있길 기원해본다. 

필자소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학 박사, 경기매탄초등학교 교사, 관심분야는 교과서와 교육과정, 교육과정 리터러시, 초등통합교육과정



독일 교육의 단면

지 양 우

서울구로초등학교 수석교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초등교사로서 유학휴직을 하고 독일 하이델 베르크교육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독일의 교사교육과 외국어 교육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은 16개 주(bundes Land)가 주법에 따라 교육을 하므로 학교 교육과정은 연방정부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주별로 다르게 편성하여 운영한다. 대학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계약에 의해 초·중·등 교사가 될 수 있지만,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대학교를 우리나라처럼 별도로 설치한 주들도 있다.

초등학교(Grundschule)의 경우 베를린은 6년, 나머지 15개 주는

4년제이고, 학급당 학생수는 OECD통계로 2006년 한국이 32명 독일은 23명이다.

의무교육기간은 12년이고, 공립학교의 학비는 무료이며, 교과서는 무상 지급하거나 대여하고 모든 학교는 원칙적으로 남녀공학제로 운영한다. 전통적으로 초·중등학교에서는 반일제 수업을 해왔지만, OECD 국가 간 학력비교평가(PISA)에서 독일이 약간 저조해 보이는 실적을 보이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3년 5월부터 일부 전일제 학교로 전환하였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점심식사를 가정에서 해결하므로 오후 1시 이전에 아동들을 하교시킨다. 중등학교에서는 보통 교내식당(Mensa)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급식비는 오래전부터 부모에게 양육비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은 개별로 음식을 준비하거나 매식한다.

1. 교사의 절대적인 권위

교사는 보통 2-3 과목을 담당하며 초등학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담임은 4년동안 한 반을 담당하여 연속하여 가르친다. 즉, 아동들은 부담임과 교과담당 교사와의 수업을 하지만 초등학교 내내 한 명의 담임교사와 생활하는 것이다.

교사는 대체로 4년의 교육과정을 연속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과정도 그에 맞추어 개발되는 추세이다. 즉, 1학년 기대 수준과 4학년 기대 수준으로 단위 목표를 진술하여 교사로 하여금 시작점과 종료점의 수준만을 제시하여 지도의 수준과 연속성을 쉽게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4학년을 마치면 담임교사의 종합적인 평가에

<표 1> 과학과 사회 통합교과 교육과정 자연과 생활 단원 목표전술

Bereich: Natur und Leben 영역: 자연과 삶

Schwerpunkt: Wärme, Licht, Feuer, Wasser, Luft 중점: 열, 빛, 불, 물, 공기

1학년 종료점의 기대수준	4학년 종료점의 기대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물과 공기, 냉온, 빛과 그림자를 실험을 통하여 특성을 찾아낼 수 있다. · 학생들이 인간과 동물 식물에게 물과 열, 빛이 어떤 의미인지 찾아내고 설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빛, 불, 물, 공기로 탐구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다. · 학생들이 계절의 변화나 물의 순환으로 자연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의해 아동들은 하우스트슐레(기초직업학교), 레알슐레(실업학교) 그리고 김나지움(인문계열)로 진학하게 되는데 이미 수십년전부터 약 30% 정도만이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대학으로 가는 독일과 60%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세계에서 교육열이 제일 높다는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의문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독일의 학부모들은 이러한 담임교사의 진로 결정에 잘 따르는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진로결정을 한다면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독일에서는 이것이 이슈화되지도 않고 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4학년을 마치고 대체적인 진로결정이 되는 것이 좀 이른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는 하지만, 담임교사가 4년 동안 가르치고 평가하고 결정한 것을 대부분 그대로 따른다고 한다. 교육에서 교사는 절대자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절대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나로서는 무척 부러운 독일 교사들의 절대적인 권위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마이스터 제도의 영향이 강한 유럽문화 즉, 모든 직업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감히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배려의 문화 탓일 수도 있다. 운

이 좋게도 나는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교생실습하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지도교수와 함께 여러 차례 방문하여 교육현장의 모습을 관찰하고 교사들과 인터뷰하면서 한 가지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독일 교사들의 긍정의 힘이었다. 정년을 5년 정도 남긴 한 교사가 ‘나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아직도 수업을 잘하고 있지.’라며 자기 자신을 진실로 자랑스러워했다. “아니 어떻게 교사가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을 수 있죠?”라고 다시 질문하니, “내가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에는 컴퓨터가 없었고, 굳이 내가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수업을 할 의무 또한 없죠.”라고 뽐뽐해 보일 정도로 당당하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2000년대 초반교단선진화사업과 함께 우리나라에선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컴맹=퇴출’이라는 인식을 경력있는 많은 교사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모습이 떠올랐다. 우리도 한 때는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교과목의 도입으로 역시 많은 교사가 소심하게 위축되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젠 ‘난 영어교사가 아니야! 당연히 영어를 못하지.’ 이런 자신감이 생길 것도 같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당당하게 해 주는가? 아마도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교사는 전문직’임을 자부하고, 그것을 스스로 지켜가는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가 ‘교사는 전문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스스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그것 같았다. 독일에서 교사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교사가 되면 5년 동안 수습교사로서 험난하고 다양한 컨설팅과 연수가 이어지고 무난히 이 과정을 통과해야 정식 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를 통과한 교사는 수업방법 및 교재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그것에 대하여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다. 이 교사는 매 여름 학기 대학에서 특별강좌를 신청해 들을 수도 있지만 평생 연수 한 번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내 딸이 다니던 김나지움에서 딸의 친구와 그 부모가 특정 선생님의 교수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 적이 있다. 그 일의 결과는 그 친구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고 선생님의 교수법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나도 딸의 11학년 선생님 소개 시간에 참석하였었는데, 전공했던 물리 분야의 실험 몇 개를 한 학기 동안 하겠다는 물리선생님, 영어 신문 기사를 독일어로 번역만 하겠다는 영어선생님, 이번 학기는 괴테만 다루겠다는 독일어선생님 등 다양한 자기만의 교수법을 진지하게 설명하였다. 나는 우리 아이를 다른 학교에 전학 보낼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혀 이의를 제기하거나 물어 보지 않았다.

2. 외국어교육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외국어교육이 시작되는데 그 배경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3학년에서 영어교육을 시작하지만 독일에서는 이웃나라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을 시작한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프랑스어를 프랑스에서는 독일어를 초등학교에서 외국어로 처음 배운다. 우리가 이것을 시도한다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교육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영어는 중등기초 과정인 5-8학년에서 배우고, 그 외 모든 언어는 10-12학년에서 제2외국어로 1개 이상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다. 외국어는 학생들에게는 늘 어렵고 부담스러우며 특히, 일상에서 늘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새 잊어버리기 쉬운 게 사실이다.


김나지움에서는 과거에 의무적으로 배워야 했던 우리의 경우 한자에 해당하는 라틴어를 제2외국어 영역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학생들이 라틴어 대신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 등을 선택하여 지켜온 라틴어에서 해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교육과정 시간배당

과목	1 - 4학년(초등학교)	과목	5 - 6학년(중등기초)
Religionslehre 종교	8 (2)	Religion 종교	2+2
Deutsch 독일어	26 (6.5)	Deutsch	4+5
Fremdsprache 외국어	8 (2)	Englisch 영어	4+4
Mathematik 수학	19 (5)	Mathematik 수학	4+4
Mensch, Natur und Kultur 인간, 자연과 문화(통합교과: 과학과 사회)	25 (6)	NWA 과학탐구	3+3
		EWG 인문지리	2+3
		Geschichte 역사	1+1
Bewegung, Spiel und Sport 체육	12 (3)	Sport	4+3
Themenorientierte Projekte 주제탐구	-	Bildende Kunst 예술(미술)	2+2
Ergänzende Angebote 보충	10 (2.5)	Musik 음악	1+1

※ 출처 : Landesbildungsserver Baden-Württemberg: <http://www.bildung-staerkt-menschen-de/service/downloads/bildungsplaene>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한자 병기 도입 건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부과하는 것 보다는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여유를 갖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필자소개

서울 구로초등학교 교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과학전공으로 학사를 마치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지학교육 석사 취득. 이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지학교육으로 철학 박사 학위 취득.

교장과 학생이 함께하며 키우는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

장 계 연

군외초등학교 교장



1. 들어가며

현재의 학교 교육에서 미래 핵심역량은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성장시키는 데에 필요한 학교교육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교장은 미래 핵심역량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성과는 교장이 교사와 학생의 눈높이에서 이해와 협력, 소통을 바탕으로 했을 때 바람직한 결과를 낳게 된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자는 스승이 될 수 없고, 스승이 될 수 없는 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오늘의 학교 현장에 던지



는 의미가 크다.

교장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최고 관리자로써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 그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장이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책무이다. 이를 위해서 교장은 학생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농어촌 소규모학교에서 교장은 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을 최대한 살려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 학생과 함께 한 활동을 소개하면서 그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미래 핵심역량의 의미와 교장의 역할

가. 미래 핵심역량의 의미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교육정보화는 교육의 변화를 촉발하였고, 이미 미국, 유럽 등과 같은 많은 선진국에서는 교육부문에서 21세기에 갖추어야 할 학습 역량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교육연구소 CERI에서는 미래 학습자의 핵심역량을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복잡한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식, 기술 능력으로 정의하고, DeSeCo 라는 영역체계 아래 크게 도구의 상호작용적 활용역량, 자율적 행동역량, 이질적 집단과의 상호작용역량으로 구분하고 있다(DeSeCo, 2006).

한국에서도 강명희 등(2008)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OECD와 공동으로 21세기 학습자들의 핵심역량을 크게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DeSeCo와 강명희 등의 미래 핵심역량의 정의를 보면 표현을 달리하였을 뿐 같은 내용의 범주로 볼 수 있다.¹⁾

나. 미래 핵심역량과 교장의 역할

본 논고자는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자세²⁾를 갖고,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활동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였다.³⁾

첫째, 학교 교육에 최우선을 두고 인성과 학력을 높이는 데 학교경영의 초점을 맞추었다.

1) 상호작용적 도구 활용역량-인지적 영역, 자율적 행동역량-정의적 영역, 이질적 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사회문화적 영역으로 볼 수 있다.

2) 본 논고자의 평소 교육 소신으로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에 대한 의지이기도 하다.

3) 학교장의 비전 구현 사례에 대해 많은 현직 교장이 제시한 내용이다.

둘째, 학생의 학교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생의 학교생활에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다.

셋째, 학생의 꿈을 가꾸기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노력하였다.

넷째,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학교 만들기 에 노력하였다.

3. 미래 핵심역량 강화 개요

가. 미래 핵심역량 강화 방법

전교생(41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미래 핵심역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등교시간에 교문에서 맞이하기, 중간놀이 시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장실에서 면담하기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① 대면 활동 집단

학생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 대면 활동, 학생 2~5 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집단 대면 활동을 하였다.

② 대면 활동 시 주의 할 점

학생과 대면할 때 학생들이 교장과의 거리를 갖고 쉽게 접근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에 주의를 기울였다.

- 1) 언어적 행동 : “~하였나요?” “~ 하였습니다니까?” “~ 하였지요?” 등의 공용어 사용
- 2) 비언어적 행동 : 어조, 어투, 시선, 얼굴 표정, 몸짓, 신체접촉, 학생과 교사 간의 거리⁴⁾

[표 1] 미래 핵심역량의 적용활동 및 내용

미래 핵심역량	활동	활동 내용
인지적 역량	책 이야기 나누기	· 책의 내용 이야기 · 주제에 따른 주장과 근거 말하기 · 토론주제 잡기
정의적 역량	‘나의 꿈’이야기 나누기	· ‘나의 꿈’ 정한 까닭 말하기 · ‘나의 꿈’ 이야기하기 · ‘나의 꿈’ 가꾸기 노력 말하기
사회문화적 역량	생활주변 이야기 나누기	· ‘나’와 ‘친구’ 이야기 · 학교생활 이야기 나누기 · 가정생활 이야기 나누기

4) 언어적 행동은 발문과 대답, 혼자서 하는 말 등 상대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모든 행위이며, 비언어적 행동은 비언어-음성 비언어적 행동과 비언어-비음성 비언어적 행동이 있다.(본 논고자의 연구논문, 수업연구 Vol.43, 2014.12.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나. 미래 핵심역량 영역 및 활동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인지적, 정의적, 사회 문화적 역량으로 규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활동 내용을 선정하여 실행하였다.

다. 미래 핵심역량 강화 단계

소규모학교에서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교장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 특별히 주어진 좋은 여건은 학생들 개인과 충분한 대면활동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한 활동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를 거쳐 실행하였다.

4. 미래 핵심역량 강화 실천

학생들과 책 이야기 나누기, 주변 이야기 나누기, 나의 꿈 이야기 나누기를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말로 격려하였다.

() 꿈을 가진 김○○, 어서 오세요. 그럼 책(주변, 나의 꿈)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가. 마음 열기

① 등굣길 1분 데이트

아침 등교시간 교문에서 학생들을 맞이 하면서 인사를 하면 큰소리로 응답하는 학생, 시큰둥하며 고개만 까딱하는 학생, 기운 없이 교문을 들어서는 학생 등 그 모습이 다양하다. 이때 힘없이 들어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면서 날씨, 학교주변 풍경, 머리모습, 아침식사 이야기 등을 하면서 기분을 느슨하게 풀어주었다.



② 교장실에서 이야기하기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또는 중간놀이 시간에 교장실 앞을 지나가는 학생과 스스로 찾아오는 학생을 불러 같이 앉아서 학교에서 오늘 할 일, 무슨 시간인지, 어디 가

[표 2] 미래 핵심역량 실행 단계

마음 열기	⇒	생각거리 찾기	⇒	생각 키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굣길 1분 데이트 · 교장실에서 이야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나의 꿈', 책 이야기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 주제 찾기 · 내 의견(주장) 말하기

는지 등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어 친근감을 갖도록 하였다. 점차 가정과 친구 사이, 선생님과 활동 등 개인 문제에서 주변문제로 확대하여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불만스러운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문제점 등은 해결하고 잘 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였다.

나. 생각거리 찾기

① 책 이야기 나누기

학생들이 읽은 책을 자유롭게 이야기한 후, 본 연구자와 책의 줄거리 말하기, 나오는 사람 특징(한 일) 말하기, 사건의 근거, 주제 말하기, 주장과 근거 말하기 등을 나누었다.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저(1, 2학년), 중(3, 4학년), 고(5, 6학년)로 나누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학년]

- 이야기 속에 누가 나오나요?(지)
- ○○는 무엇을 하였나요?(지)⁵⁾

[중학년]

- 이야기에서 가장 ~ 한 내용은 무엇인가요?(지)
- 사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지),(사)



[고학년]

- 지은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지)
- 이야기 속 인물에서 가장 독특한 성격인 사람은 누구인가요?(지), (인)

② 주변 이야기 나누기

학생들이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 등을 자연스럽게 말하게 하였다. 집과 마을에서는 부모님과 친구와 상급생, 어른신들과 있었던 일, 학교에서는 수업 중, 쉬는 시간, 점심시간 또는 체험학습 후에는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게 하였다. 주변 이야기 나누기에도 저, 중, 고를 달리하여 질문하였다. 주변 이야기를 할 때 학생들은 대부분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를 반드시 말하도록 하였다. 이는 그때마다 지적하고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지), (인), (사)는 각각 인지적 역량, 정의적 역량, 사회적문화적 역량을 나타낸 것이다.

[저학년]

- 집(학교)에서 했던 일 중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지)
- ~ 그때 아빠(친구), 엄마(선생님)의 표정은 어땠나요?(인),(사)
-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지),(인),(사)

[중학년]

- 왜, 그런 일이 있게 되었나요?(지)
- ~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인),(사)
- 내가 반대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지),(인),(사)
-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지요?(인),(사)

[고학년]

- 그런 일이 자주 있었나요?(지)
- 그 일을 함께 해결할 수는 없었나요? 함께 하는 일이 어려웠나요?(인),(사)
- 혼자 했을 때와 함께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을까요?(지),(인),(사)
- 그때 상대방(부모님, 친구, 선생님)의 반응은 어땠나요?(지),(사)

③ ‘나의 꿈’ 이야기 나누기

‘나의 꿈’ 이야기는 전교생이 자신의 꿈을 정하고 그 꿈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질문하였다. 아이들 사진과 꿈을 학년별로 제작하여 현관에 걸고 또 A4 용지에 인쇄하여 교장실에 비치해 놓고 아이들을 마주치거나 이야기할 때 꿈을 말하여 관심을 표시하였다.

[저학년]

- 참 좋은 꿈이네요. 왜 이런 꿈을 정하였나요?(지)
-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요? 또 특별히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인),(사)

[중학년]

- 왜 이런 꿈을 갖게 되었나요?(지)
-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나요?(지),(인),(사)
-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함께 하는 일은 있나요?(인),(사)

[고학년]

- 내 꿈과 친구의 꿈을 비교해 본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인),(사)
-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다면 어떻게 설득하였나요?(인),(사)
-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나요?(지)



다. 생각 키우기

① 책 이야기 나누기

여기서는 학생들의 생각을 좀 더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생각거리 찾기에서 저학년의 경우 단순한 지식을 캐내어 나의 입

장과 대비해 보고, 중학년에서는 사건의 원인을 바꿀 때 결과를 예상하며, 고학년은 이야기에서 한 개의 주장을 만들어 근거를 말하도록 하였다.

[저학년]

- 이야기 속의 ○○는 어떤 사람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인)
- 나라면 어떻게 할까요?(사)

[중학년]

- 이야기에 나오는 ○○과 나를 비교할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해볼까요?(인),(사)
- 사건의 원인을 바꾸어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말해볼까요?(지)

[고학년]

- 내가 이야기에 나오는 ○○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인),(사)
- 주장을 만들어서 그 근거를 말해볼까요?(지),(인)
- 주장을 반대로 하여 근거도 말해볼까요?(지),(사)

② 주변 이야기 나누기

주변 이야기 나누기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 주변의 사람과 환경을 인지하고 이해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저학년]

- 그때 부모님(선생님, 친구)가 한 말이

나 행동에서 재미있었던 건 무엇이었나요?(인),(사)

- 감사한 마음이나 미안한 마음은 없었나요? 어떻게 표현했나요?(인),(사)

[중학년]

- 그런 일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또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일이 있었다면 말해볼까요?(인),(사)
- 내 생각과는 다른 일(환경)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나요?(인),(사)

[고학년]

-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지),(인),(사)
- 그 상황에서 부모님(선생님, 친구)과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인),(사)
- 그 일과 비슷한 이야기를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나요?(지),(사)

③ ‘나의 꿈’ 이야기 나누기

‘나의 꿈’ 이야기를 통해 생각 키우기에 서는 책에서 또는 주변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생각하도록 하였다. 저학년에서는 자신의 꿈을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학년]

- 나의 꿈을 친구들 앞에서 말할 때 어떤가요? 자신이 있나요?(인),(사)

[중학년]

- 자기의 꿈을 갖고 노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지),(인)

- 나의 꿈을 방송에 나와서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지),(인),(사)

[고학년]

- 나의 꿈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인),(사)
- 자신의 꿈을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을 알고 있나요? 그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여 말해볼까요?(지),(인),(사)

5. 나가며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 실천한 결과 성과는.⁶⁾ 첫째, 책 읽는 태도가 진지해 졌고,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짜임새 있게 말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둘째, 자신의 꿈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으로 노력하는 태도가 좋아졌으며, 셋째, 주변의 상황과 부모님, 선생님, 친구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앞으로 실행과정에서 첫째, 교장의 역할이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올바른 방향 제시와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고, 문제해결에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되며, 둘째, 교장과 학생의 면담 활동이 자칫 담임교사의 역할에 장애나 위축이 되지 않도록 하며, 셋째, 면담이 지속되면서 교장의 말에 진정성이 결여되거나 학생

을 대하는 태도가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15). 교사용지도서 사회(5~6학년군 사회 1) 진주교육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 이정은(2007). 비언어적 의사소통 지도를 위한 학습자료 개발 연구. 어문한교육 제34집 논문
- 이햇님(2012). 교사의 비언어적 행동이 사회과 수업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계연(2014).수석교사 수업 분석을 통한 인성지도전략 탐색 Microethnography. 수업연구 Vol. 43.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4). 미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정보화의 역할
- 한국교원대학교종합교육연구원(2013). 신교장학. 2013학년도 초등교장자격연수 자료. 한국교원대학교

필자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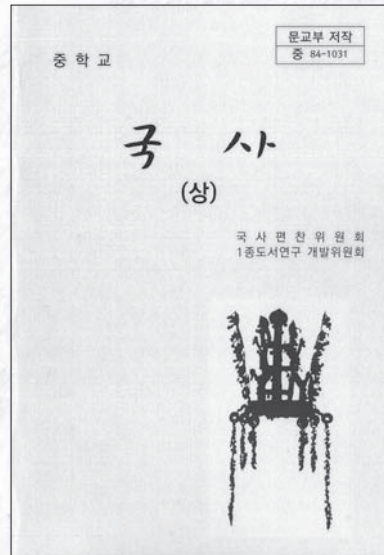
목포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을 거쳐 목포대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완도) 군외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과연구위원, 초등교육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한국교육신문에 '보직교사, 소규모학교에 더 필요'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여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보직교사 확충에 기여하였다. 또한 『교육전남』에 다수의 칼럼을 통해 초등교육 현장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학생면담, 수업참관 등에서 학생생활 모습 관찰, 교육과정 반성회(월 1회)시간에 담임교사의 소견 참고하였다.

법정에서 세워진 국사교과서



윤 종 영
전 역사편수관



1. 국사교과서에 대한 공세

필자가 편수관으로 문교부에 몸담았던 1980년은 교육과정 개정 주기에 따라 제4차 교육과정 개정작업이 시작되던 때이다. 이와 아울러 새 교육과정 개정과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국사교과서 개정 작업도 진행되었다. 원래는 새 교육과정이 고시된 뒤 이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 개정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때는 사용하고 있던 국사교과서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새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국사교과서 개정 작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 작업과 동시에 교과서 개정작업도 진행하였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안호상 박사(초대 문교부장관)를 비롯한 세칭 재야학자(박시인, 임승국 등)들은 자기들의 주장이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강력한 공세를 펴기 시작하였다.

안호상 박사를 비롯한 재야학자들이 국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 세간에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이후, 「자유지」(박창암장군이 발행)등을 통해 기존 국사학계를 식민주의 사관론자 및 민족반역자라라고 맹렬히 비난하면서 부터이다. 특히 이들은 당시에 원로사학자인 이병도, 신석호씨가 일제시대 때 우리 역사 왜곡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수회에 참여한 사실 등을 들어 이들을 친일파로 매도하였고 이들에 의해 형성된 국사학계의 학맥도 같은 부류라 맹공을 가하였다. 그리고 이를 일부언론이 취급하면서 문제가 더욱 확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을 등에 업고 안호상 박사는 국사의 고칠 점과 국사교과서 내용 시정에 관한 건의서를 대통령, 국무총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였지만 문교부는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한 답변에서 안호상 박사의 주장은 역사연구의 기본이 되는 사료비판(史料批判)도 없이 사료로서 가치가 없는 등외(等外) 사료에 근거하여 아마 추어적 발상에서 역사를 왜곡, 확대 해석한 낭설(浪說)에 불과하다고 일축하였고 국사학계도 별다른 대응 없이 묵살(默殺)하는 자세로 일관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자기들의 주장이 문교부나 학계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방향을 바꾸어 학생과 군인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강연회를 개최하고 책자를 보급하는 방식을 통해 자기들의 학설에 대한 상당한 지지세력을 확보하였다. 특히 재야학자들의 기관지처럼 되어 있던 「자유지」가 군인들의 정훈교재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컸다. 더욱이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심정적으로 재야학자의 학설에 동조하고 있던 젊은 영관급 장교들이 정부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문교부에 유형·무형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왔다. 이러한 압력은 필자에게 집중되었는데, 주로 방문 항의, 다수인을 동원한 민원 제기, 정계 인사를 통한 압력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 되었다. 이 가운데 5공정부의 실력자들인 일부 영관 장교들은 장관에게 직접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하루는 아침에 출근했더니 장관 비서실에서 장관이 찾는다는 전화연락이 왔다. 바로 장관실에 갔더니 이규호 장관이 두 장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어제 국방부에 있는 이 사람이 찾아와 국사교과서 내용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고 갔는데 마침 윤편수관이 출장중이라 이들과 만나지 못하였으니 오늘 직접 찾아가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이 좋겠소, 그 사람들 보니 상당히 공부도 하였고 나름대로 상당한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있던데 만난 뒤에 결과를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소”

필자는 기분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장관의 말씀이니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장관실을 나왔다. 이들은 국방부 소속의 육군중령으로 만나 본 뒤에 알았지만 두 사람 모두 위탁교육으로 서울대를 나오고 대만에 유학하여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엘리트 군인였다.

필자는 전화로 약속을 하고 국방부 휴게실에서 이들과 만났다. 그들은 “국사교과서는 국민들에게 민족의식과 민족적 자부심, 긍지를 심어주는 민족 경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국사교과서 내용은 학문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이더라도 국민 교육용으로 필요하면 수록하여야 한다. 구약성경 내용은 믿을 수 없는 내용도 많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자기들의 고대 역사 교과서로 활용하고 있다”며 재야측 주장을 국사교과서에 수록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물론 국사교과서가 국민교육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국사교과서는 단순한 학문적인 내용보다 역사교육이란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도 학문이요, 과학인데, 국민교육이란 미명하에 학문적 연구도 미흡하고 확증적인 자료도 없는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 재야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는 사료 비판이나 고고학의 뒷받침이 없어 학계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학계의 연구성과에 의해 이것이 학계에서 정설화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과서이기에 재야 측의 주장 등도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수용 가능한 내용은 수록토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그래서 지금 개발하는 국사교과서 내용이 현행 교과서보다 좀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서술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평상시 필자가 가지고 있던 소신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대화는 2시간이나 계속되었다. 일부 재야측 인사들처럼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비교적 차분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분위기였다. 이들은 역사 전공자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강한 애정과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한 번은 문교부에 출입하는 보안사 직원의 소개로 보안사 소속의 대령이 시간을 내 달라고 해서 만나본 적이 있었다. 그의 주장 역시 앞서 만난 국방부 소속의 장교와 같은 것으로 비슷

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러한 유형·무형의 압력이 나를 상당히 정신적으로 괴롭혔지만 필자는 나름대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였다.

2. 국사교과서 소송

안호상 박사는 자기의 주장이 쉽게 교과서에 수용될 것 같지 않자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갔다. 안 박사의 국사교과서 법원 제소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때에 본격적으로 이 소송에 힘을 기울였다. 이 소송은 안 박사가 용태영 변호사를 소송수행자로 하고 문교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었다. 필자는 소송수행자가 되어 문교부 고문변호사인 최광를 씨와 법원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았다. 재판은 한 달 간격으로 계속되었다. 법정에서 안 박사와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지만 필자에게는 그렇게 반가운 일만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러한 대화를 통해 안 박사가 주장하는 것이 맞든 틀리든 간에 이 분이 갖고 있는 우리 역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우리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한 집착과 소명의식을 느낄 수 있었고 매번 만날 때 마다 80세를 훨씬 넘으셨음에도 학문에 대한 열정과 끊이지 않는 그 집념에 강한 인상을 받은 하였다.

법정에서 실제로 재판받는 시간은 짧았지만, 법원에서 요구하는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야 했기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 매달 몇일씩 재판을 위한 행정적 준비와 뒤처리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귀찮았다. 특히 원고 측에서는 교과서 집필자를 증인으로 요구하는 바람에 이들에게 법정 출두요구서가 날아들곤 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필자에게 자주 항의성 전화를 하였고 출두하기 싫어하는 대부분 대학교수들인 집필자를 설득하여 법정에 데려가는 것도 큰일이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뒤에는 중견학자들이 교과서 집필을 기피하게 되어 집필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재판은 증인이 없을 때는 피고 소송수행자인 필자나 원고인 안박사가 재판장 앞에 나가 재판장의 몇 마디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기도 하였지만 재판은 근 2년여 계속 되었다.

선고를 하는 마지막 재판에서 재판장이 필자에게 물었다.

“원고 측의 주장은 우리 고대사를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미자는 것이고 이를 국사 교과서에 수록하여 교육하면 학생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과서는 학문적인 연구가 미흡한 내용, 즉 학계에서 정설화(定說化)되지 않은 내용은 수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을 교과서 집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 내용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현재 학계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소수 의견이기에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고 측이 학문적인 연구를 보다 깊게 하여 그 주장이 학계에서 정설로 수용하게 된다면 자연히 교과서에 수록될 것입니다.”

“학계의 정설이 무엇입니까”

“정설이란 학계의 중견학자 다수가 공감하고 동의, 인정하는 학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설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잘못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몇몇 개인의 학설보다는 학계의 중진 대다수가 인정하는 것이 잘못이 적겠지요. 대학교육 같으면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비판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설혹 잘못된 학자 개인의 주장도 다룰 수 있겠지만 학문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보통교육 수준에서는 학계에서 걸러진 정선된 내용만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 지식이 다루어진다면 교육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 측의 주장이 교과서에 수록된다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문교부에서는 역사교육이란 측면을 고려하여 원고 측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이 중 학문적인 전거가 마련된 학계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필자와 재판장 사이에 이러한 질의와 답변이 오고간 후 이날의 재판은 끝났다. 다음 달 학문적인 내용은 사법적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년여 계속된 재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안박사가 제소한 재판은 막을 내려 시원했지만 국사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재판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이는 항상기라는 사람이 제소한 것으로 자기 아들이 서울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잘못된 국사 교과서로 교육을 받아 피해를 받고 있으니 이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국사교과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어 재판이 진행 되고 있었다.

이 재판은 필자가 소송수행자로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재판을 받았고 이것도 근1년여 동안 지속되다 원고 패소로 끝을 맺었다.

3. 에필로그

필자는 2년여의 재판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생각하였다. 이 소송에서 주요쟁점으로 부상한 것이 한국사 가운데서도 주로 고대사분야에 관계된 것이었다. 이것들은 국사교과서에 한정된 문제라기보다 우리 국사학계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문교부 편수관이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사학계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이 활발해져 많은 연구 업적이 축적됨으로써 달리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정설이 확정되는 길만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존 우리학계가 연구 인력의 부족, 사료의 부실 등으로 재야학자들의 주장을 학문적으로 압도할 만한 연구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재야학자들의 주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국민정서상 국민들에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었다. 더욱이 기존학계에 몸담고 있는 학자들이 학문적인 고고성(孤高性)만을 내세워 대학이나 폐쇄적인 학계의 울타리 속에 파묻혀 대중과 유리된 채 안주하고 있었던 데 반해, 재야학자들은 학문적으로 미숙하더라도 대중매체나 대중과의 접촉을 통해 국민 깊숙이 파고들어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 등 이 국사교과서 편찬에 이러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이런 국사교과서 소송 사건은 필자에게는 많은 괴로움을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사교육전반에 대해 정부나 학계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여 국사학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재야학자들의 주장 일부가 국사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었던 것 도 하나의 수확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30여년 전 옛일을 회상하면서 당시에 어려웠던 일 보다 안호상 박사를 비롯한 재야학자들의 국사교육에 대한 열정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 속에 전개되었던 국사교과서 개정운동의 분위기에 대해 그리움이 느껴진다. 이는 최근 정부의 무관심과 국사학계의 소극적인 대응 속에 학교에서 국사교육이 제자리를 잃어가고 특히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국사교육내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80노령에도 국사교육에 집념과 열정을 가지고 법정으로 국회로 문교부로 뛰어다니시던 안호상 박사를 떠올리며 팔장 끼고 앉아있는 필자 자신을 되돌아보며 가끔 부끄러움에 머리가 숙여지곤 한다. ~~~~~

필자소개

연세대학교 사학과 및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국사편찬위원회연구관, 교육부 역사담당편수관(1980~1992)
서울 금천고등학교 교장.



아름다운 몽상, 육사의 “청포도”



김 원 길

시인, 안동지례예술촌장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고옴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던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서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함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육사의 ‘청포도’ 전문이다.

아무리 우수한 시 낭송가라도 시에 곡을 부쳐 노래로 부르는 가수만큼 시를 많이 외지는 못하리라. 옛날 어른들 말씀에 “맹자삼천독에 툇탁지성(孟子三千讀에 ‘툇탁’之聲)”이란 게 있다. 경전을 읽어도 모르거든 되게 여러 번 읽으면 문리가 ‘툇탁’하며 터지는 법이니 무조건 많이 읽어보란 가르침이다. 비슷한 뜻으로 후한(後漢) 사람 동우(董遇)도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見)”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나는 육사의 ‘광야’와 ‘청포도’를 누구보다 많이 읽은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시 중 ‘광야’와 ‘청포도’를 매양 노래로 부르고 지내니 말이다.

육사의 ‘청포도’가 ‘광야’와 함께 최초로 노래로 불리게 된 것은 1968년 5월 5일 안동의 낙동강가에 육사의 시 ‘광야’가 시비로 세워지고 그날 저녁에 추모 공연을 시내 대안극장에서 할 때였다. 나는 그 무렵 고향 안동에서 교직생활을 하며 문학 지망생들과 “안동문학회”를 조직하여 문학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 4월 중순경에 안동시장이 나를 불러선 5월초에 육사시비 제막 기념행사를 하게 되니 안동문학회가 맡아서 무보수로 행사를 치러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날의 행사 전반을 기획하게 된 나는 친구 작곡가 이춘길(1942~2013)에게 이 두 시에 곡을 부쳐서 무대에 올리자고 했던 것이다. 연세대 종교음악과를 나와서 안동에서 음악교사를 하며 안동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하던 이춘길의 작곡과 지휘는 너무나 훌륭하였고 시내 여러 교회의 성가대원들 중 엄선한 단원들로 맹연습을 시켜서 합창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사회를 보던 나도 합창 댄 테너 줄에 서서 입을 크게 벌리고 열심히 노래를 불러댔다. 이춘길이 나를 합창단에 넣어 준 것이었다. 이육사 시의 최초 작곡가 이춘길은 그 단원들로 안동시립합창단을 결성하였으나 당국의 지원 부족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해체하고 L.A로 건너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돌아와 대구 계명대학교 교수가 되고 서울로 올라가 명성교회의 상임지휘자가 되더니 합창단을 이끌고 외국 여러 나라를 순방하며 자선공연을 한 사람이다. 그의 필생의 명작 ‘광야’와 ‘청포도’는 그의 젊은 날의 열정과 재기를 쏟아 부은 합창곡으로 막역한 친구였던 나는 80을 바라보는 지금도 이 두 곡의 노래를 악보 없이 흥얼거리고 다닌다. 그리고 그 노랫말에 담긴 장면들-청포도, 바다, 흰 돛단배, 청포, 은쟁반, 모시수건 등을 수없이 떠올리며 지은이의 시상과 작중의도를 궁구하며 지내왔다. 그러다보니 나는 ‘청포도’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생각을 했다는 자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청 포 도

안동시민합창단

이 육사시
이춘길곡

미육사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2004. 7. 31)

그런데 이 시에 대한 소위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와 주장을 들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첫째, 여기 “내 고장”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육사의 고향 ‘원촌’ 마을이란 주장이다.

그런데 어떤 이는 “원촌엔 그 당시에 ‘청포도’ 나무가 없었고 바닷가도 아니니 이 시에서의 “내 고장”은 그가 한때 머물렀던 경북 동해안의 ‘흥해’일 거라는 주장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흥해는 발 빠르게 ‘청포도’ 시비를 세워놓고 있다.

둘째, “내가 바라던 손님”은 ‘조국 광복’이란 주장이다.

여기에 대해 또 다른 주장은 조국 광복이 어째서 “고달픈 몸”으로 찾아온다는 말이나, 어불성설이

라고 흥분하고 있다.

셋째, “청포를 입고 찾아오는 사람”은 중국인 친구이거나 일경의 눈을 피해 중국인의 복장을 한 조선인 밀사가 아니겠느냐는 등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청포가 시퍼런 중국옷이란다.

심지어 “짜지게 가난한 시절에 웬 식탁에 은쟁반이 있단 말인가!”라고까지 의혹을 제기한다.

내가 육사의 이 시를 외고, 또 수없이 노래 부르면서 얻은 결론은 한마디로 ‘향수병자의 아름다운 몽상이 빚어낸 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이 시를 조국광복과 연관 지어 해석하려 드는 한 이 시의 작중 의도는 풀리지가 않는다.

그러니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 시는 독립운동과 아무 관계가 없다. 독립운동과 연관 짓지 않아도 이 시는 충분히 아름다운 서정시이다.

시를, 문학작품을, 썬다면 알겠지만 시인은 사실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사실처럼 꾸며서 감동적으로 쓸 뿐이다. 육사만 예외일 수는 없다.

가령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해서 ‘내 고장’이 반드시 원촌마을일 필요도, 청포도가 실제로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육사가 이 시를 쓴 마음의 위치는 자기 집이 라기보다는 중국 같은, 해외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향수에 젖어서 썼다고 봐야한다. 즉 바다 건너 객지에서 7월을 맞아서 생각해 보니 고향엔 지금쯤 청포도가 열려 있을 것 같고 그걸 맛보고자 배를 타고 돌아가고자 하니 고향에 있는 조카아이가 상차림을 해 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은 시인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손님’은 누구인가?

손님을 ‘육사 자신’이라고 보면 이 시는 깨끗이 해독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조국광복이라고 하면 “조국광복이 어째서 고달픈 몸으로 온다는 거냐?, 조국광복이 왜 청포를 입고 찾아오느냐?”에 말문이 막힌다.

그러면 여기서 청포란 무엇인가? 청포는 열은 청색 모시 두루마기로서 조선의 선비들이 한여름에 입던 최고급의 나들이옷이다. 모시로 중의저고리(상하의)를 입고 그 위에 열은 하늘색 물을 들인 두루마기나 도포를 입는다는 것은 여간 비싸고 멋스러운 사치가 아닌 것이다. 집을 떠나 풍찬노숙을 하고 감옥 생활까지 했던 육사에게 선비의 성장(盛裝), 즉 청포를 입어본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꿈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꿈은 독립운동과 관계없이도 향수병을 가진 떠돌이에겐 꾸어질 수 있는 꿈이다.

나는 이 원고청탁을 받고 청포 두루마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려고 안동 시장의 베전골목을 둘러서 물어보았다. 안동포상회의 주인 할머니로부터 알아낸 것은 청포란 한산모시에 하늘색 물을 은은히 들인 것으로 양반들이 여름에 시원해 보이라고 해 입던 것인데 요즘은 워낙 비싸서 주문이 없고 옥색 물들인 중국산을 보여 주었다. 내가 “아무아무개는 노란 안동포에 쪽물을 들여서 청포 두루마기라며 입고 다니더라고 했더니, 할머니 왈 “쌍X들이 건문은 없고 돈 좀 있다고 별 짓을 다하는구먼. 모시에 열은 하늘색이라야지, 삼베에 퍼런 물 들이면 고운 삼베 색깔은 어찌 되노? 내 무식하다는 자랑밖에 더 되나!” 대성일갈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바라는 손님”이 실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육사 자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에 어느 손님이 친구 집을 방문할 때 내가 무슨 옷을 어떻게 입고 가겠노라고 말하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는 것이고, 없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도 실제로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 구절은 육사가 자기의 소망을 나타낸 걸로 봐야한다.


“내가 바라는 손님”을 “내가 되어 보고 싶은 손님”으로 보자. 그러면 ‘나’인 그 손님이 먼 뱃길에 고단한 몸으로 고향으로 가는 흰 돛단배에 청포자락을 날리며 뱃머리에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나는 이 시를 외거나 노래로 부를 적마다 흰 돛단배 위에 청포를 입은 육사의 단아한 모습이 떠오르곤 했다.

그리고 그 손님이 바로 육사란 걸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혐의는 제일 끝 구절이 “마련해 두자”가 아니라 “마련해 두렴”인 점이다.

만약 육사가 집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입장이라면 아이와 함께 “마련해 두자”가 되어야겠지만 육

사 자신이 손님처럼 고향집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골의 아이에게 “마련해 두렴”하고 상차림을 부탁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안동시 도산면 원촌마을의 육사 생가는 안동댐 건설로 수몰이 되게 되자 경상북도는 1974년 민속 자료로 지정하여 1976년 안동시내 태화동에 옮겨져 있다. 옮길 당시엔 아래 윗 채 두 이 =자(字) 집에 한옥 방이 넷 뿐이지만 육사의 따님 이옥비(74)여사의 기억에 의하면 원래는 입구(口)자 집에 방이 다섯인 전형적인 사대부가의 모습이었던한다. 양친 부모와 여섯 형제가 살았고 형제들이 허구한 날 일경에 쫓기고 감옥엘 드나드는 형편이었으니 거기에 풍요롭게 중국이나 서양 식 집기인 식탁이니 은쟁반 등이 있기는 어렵다. 그러니 식탁, 은쟁반, 모시 수건도 육사의 머릿속 그림이요 희망 사항일 뿐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라고 보인다. 육사가 실제로 겪었던 시골 정경은 시골의 여느 집들과 마찬가지로 타작마당에 멍석을 펴고 마른 쪽으로 모깃불을 피워놓고 가족이 둘러앉아 나누어 먹던 감자나 수박 파티가 고작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1930년대 경상북도 북부지역, 아니 이 나라 전체 농촌의 전형적인 저녁풍경이다. 거기에 비하면 신품종 청포도는, 그리고 모시두루막, 은쟁반, 모시수건 등은 육사의 추억에 고급스런 근대적 ‘댄디’ 취향이 더해진 것으로써 고달팠던 육사가 향수병에 시달리며 꿈꾸었던 아름다운 몽상이라고 짐작된다.

시인은 이렇게 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시를 통해 자기의 소망을 나타내고자 여러 가지 상상을 동원하고 방법을 구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즐기면 되는 것이지 진실게임에 나설 필요도 과장된 해석을 갖다 붙일 이유도 없는 것이다. 원촌 마을에 바다가 없다는 걸 밝히는 게 무어 대단한가? 독립운동과 관계없어도 육사의 청포도는 마냥 아름답기만 하다. 육사는 조국광복의 대의를 뛰어넘어 세계의 평화와 인류구원의 꿈까지를 머리에 그려 본 시대를 초월한 시인이요 아름다운 혁명가였다. 

필자소개

《월간 문학》에 「취운정 마담에게」(1971), 《시문학》에 「꽃그늘에서」 외 5편으로 등단(1972). 시집 《개안》(1974), 《내 아직 적막에 길들지 못해》(1984), 《들꽃다발》(1993), 《아내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한다》(2009), 해학모음집 《안동의 해학》(2002)을 냈다. 중등학교에서 국어, 대학교에서 문장론, 비교문학을 강의하다가 임하댐 건설로 고향 지례마을이 수몰될 때 교직을 포기, 선대의 고기들을 뒷산으로 옮겨 문예창작마을 ‘지례예술촌’을 조성하고 고택문화보존회를 창립하는 등 전통생활체험에 힘써 육관문화 훈장을 수훈하였다.

수학 교과서, 인정도서가 되다



배 경 윤

(주)비상교육 수학혁신부

1. 나의 수학 교육과정은.....

초등학생 때는 제3차 교육과정과 제4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중학생 때는 제4차 교육과정과 제5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고등학생 때는 제5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배우고 대입학력고사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였다. 초·중·고 시절 교육과정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교육과정의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사실 그때는 지금 배우는 게 제 몇 차 교육과정 인지가 중요하지도 궁금하지도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과목인 수학 역시 그저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배웠을 뿐이었다.

수학 교육과정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학습지와 단행본을 개발하는 출판사에 취직하여 중·고등 수학 편집자의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흔히 ‘교재’라고 이야기하는 초·중·고 학습 도서는 일반 인문 도서와 달리 학교 내신 시험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에는 이전 교육과정과의 비교, 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이러한 편집자의 생활을 시작한 것은 제7차 교육과정부터였다. 당시 제7차 교육과정은

영원할 것처럼 길게 느껴졌지만, 그 후로도 2007개정 교육과정과 2009개정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너무나 먼 옛날(?)이 되어버린 제1차 교육과정과 제2차 교육과정을 제외한다면 제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만 보지 못한 셈이다.

2. 나의 수학 교과서는.....

초·중·고 시절 배웠던 수학 교과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아마도 국어, 사회, 과학 등 그 시절의 다른 과목 교과서와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오랜(?) 학창 시절을 지나 다시 만난 교과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 수학 교과서였다. 교학사, 대한교과서, 두산동아, 중앙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어린 시절 참고서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출판사의 것도 있었고, 낯선 이름의 출판사의 것도 있었다. 사회생활을 하며 처음으로 다시 만난 수학 교과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교과서의 이미지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학창시절 배웠던 수학 교과서의 모습을 이미 잊어서일 수도 있지만, 일단 판형, 서체, 색도 등 외형적인 모습에서 역시 교과서는 교과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선택 과목이 나누어지고 교과서에 계산기나 컴퓨터의 활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 코너와 수학적 과정을 강조한 코너가 추가되기도 하였지만, 교과서가 확 바뀌었다는 느낌을 주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그로부터 몇 년간의 편집자 생활을 한 후 2007개정 중·고등 수학 교과서를 접하게 되었다. 현재 근무 중인 비상교육이 교과서 시장에 진출하면서 2007개정 교육과정의 수학 교과서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2007개정 교육과정의 수학 교과서는 검정도서임에도 교과서와 익힘책이라는 두 권 체제의 파격적인 모양을 띠고 있다. 이전에 없었던 형태이며 인정도서인 2009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현재에도 없는 형태이다. 부족하나마 사교육에 대한 대항마가 되었고 자칫 천편일률적일 수 있는 검정도서에 발행사마다 개성을 부여하였던 ‘익힘책’인데, 미처 자리를 잡기도 전에 사라지게 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후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주도로 과학 교과서와 더불어 수학 교과서가 검정도서에서 인정도서로 변화하였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중·고등 수학 교재를 만들어왔고 중·고등 수학 교과서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준비 과정부터 출원까지 교과서 개발의 모든 것을 직접 주도하게 되었다. 학창 시절 12년간 좋은 싫든 볼 수밖에

없었던 수학 교과서와 편집자로서 검토해야 했던 수많은 수학 교과서가 있지만 한 쪽 한 쪽에 애정이 묻어있는 나의 수학 교과서는 인정도서인 2009개정 교육과정 중학 수학 교과서이다.

3. 2009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에 2007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처음 적용되었고, 그로부터 1년 후인 2010년 초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물론 교육부의 실무자는 훨씬 이전부터 준비하였겠지만, 편집자들 사이에서는 이 시기에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이야기와 너무 일찍 교과서를 바꾸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처음 들은 것은 2011년 2월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창의 중심의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에 관한 세미나’에서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2007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이후 같은 해 6월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2011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공청회’에서는 몇 가지 논쟁이 있는 내용이 있었지만 대체로 새 교육과정의 내용을 확정하는 분위기였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수학적 창의성 강조
- 수학적 과정의 강화
- 수학 교과 내용 양의 20% 경감
- 교육과정의 체제에서 학년군제를 염두에 둔 학년별제 적용

수학에서 창의성과 수학적 과정을 강조하고 학습량을 줄이겠다는 것은 표현은 달랐지만,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꾸준히 추진되었던 것이라, 이 중에서 표면상으로 가장 눈에 띈 것은 학년군제였다. 학년군제는 초등수학을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으로 나누고 중등수학을 1~3학년군으로 묶어서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결국 학생들 간의 학습 수준 차이를 인정하고 수준별 수업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있었다.

이외에 내용상으로도 수학 교과에서 2009개정 교육과정은 제법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오랫동안 중·고등수학의 첫 단원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던 집합이 고등학교 과정과의 중복을 이유로 중학교 과정에서 삭제된 것이다. 물론 중단원 정도의 분량이 통째로 삭제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른 단원과 독립적인 내용이라 별 영향이 없었다. 하지만 집합은 방정식, 함수 등의 다른 단원과 연계된 부분이 많아서 그동안 사용해오던 표현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대체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안겨주었다. 또 창의융합 교육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던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과 흥미로운 수학을 표방한 스토리텔링의 반영은 새로운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4. 수학 교과서, 인정도서가 되다

교과서 편집자 입장에서 볼 때, 뭐니 뭐니 해도 2009개정 교육과정 수학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은 검정도서가 아니라 인정도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중·고등 수학 교과서가 인정도서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지만 2011년 8월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중·고등 수학 교과서는 인정도서가 되었다.


인정도서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율성과 다양성이다. 정해진 교육과정 내에서 내용과 체제의 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수학 교과서가 인정도서가 되는 것은 처음이라 개발 초기부터 검정심의 보다 더 까다로운 인정심의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 또 인정도서에 대한 편찬상의 유의점과 수학 교과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검정도서일 때의 경험과 검정기준을 참고하여 교과서를 개발해야 했다.

2011년 가을, 교과서를 집필할 저자의 구성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었다. 초기 작업에서 가장 많이 고민이 되었던 것은 ‘인정도서로서 교과서의 구성 및 체제의 자율성을 어디 정도까지 허용할까?’ 라는 것이었다. 다들 새롭고 참신한 교과서를 만들고 싶었지만, 여태껏 검정도서 체제에 익숙해져 온 저자와 편집자가 파격적인 구성의 교과서를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 탈락하지 않을까?”, “아무리 변해도 교과서는 교과서다워야 한다.” 등의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인정도서로 바뀐 만큼 뭔가 새로워야 한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등의 적극적인 의견

도 있었다. 결국 기존 교과서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적정선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는데, 이는 지금 생각해도 참 아쉬운 부분이다.

교과서의 발행사는 수준 높은 교과서를 만들 의무가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와 더불어 검·인정심의 통과와 학교별 채택률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된다. 새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 끊임없이 논의하고, 십수 번의 교정·교열 과정을 통해 내용을 다듬어서 검·인정 심의에 대비한다. 또 해외 도서, 잡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새롭고 참신한 소재를 찾고, 기존 교과서 혹은 타 발행사의 교과서와 차별성이 있는 구성을 연구하여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인정도서의 경우 많은 발행사가 자신만의 구성과 포장(?)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선택을 기대한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수학 교과서는 나의 첫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운 좋게 높은 채택률의 교과서가 되었고 이에 나름대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타 발행사의 수학 교과서를 보면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내가 놓친 게 이것이었구나.’ 등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인정도서인 2009개정 교육과정의 수학 교과서는 이전 교육과정의 수학 교과서보다 훨씬 다양해졌다. 수준별 문제를 별도 구성한 교과서도 있고, 종이접기, 그래프 그리기 등 다양한 활용 요소의 준비물을 수록한 교과서도 있다. 별로 대단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검정 체제에 익숙한 대부분의 발행사에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시도였을 것이다. 현재의 수학 교과서는 인정도서가 보편화된 해외의 수학 교과서에 비해 아직 다양성과 자율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제 시작인 인정 체제의 수학 교과서가 지금은 조금 아쉬워도 앞으로는 더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수학 교과서로 학교 현장의 모든 교사와 학생이 만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필자소개

현재 비상교육 교과서개발부문 수학 편집자로 근무하고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 비상교육 중학교 수학 ①, ②, ③ 교과서 개발을 담당하였다.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주) 더텍스트

장 호 진 대표



왜곡된 내용 없이 수준 높은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



아직 (주)더텍스트가 생소한 분들에게 회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주)더텍스트는 영어 교육 전문 기관인 YBM의 전신인 YBM/Sisa가 설립하였으며, 교과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출판 기업입니다.

당사의 모체인 YBM은 1961년 창립 이후 영어를 중심으로 한 어학 관련 도서를 개발하며 50여 년 동안 교육 사업을 키워 왔습니다. 그러던 중 개발된 교과서들의 지속적인 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YBM의 창업자이신 민영빈 회장님께서 아시게 되었습니다.

교과서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학생과 선생님에게 불편함이 없는 생명

력 있는 교과서가 되도록 꾸준한 질 관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이에 따라 전문 인력을 갖춘 교과서 전문 개발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여기에 뜻을 담으신 민 회장님의 의지에 따라 (주)더텍스트는 교과서 전문 출판사로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한문, 보건 등 전 과목에 걸쳐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주)더텍스트는 교과서 사업을 시작하며 다져온 역량이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밑거름은 오늘의 YBM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과서 개발 업체의 면모를 갖추고 앞서가는데 있어 모판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과서 사업을 맡아 꾸준한 성장을 이끌어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과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이가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더 많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 없이 달리는 것이 우리 회사의 사훈입니다.

이를 구현해 나갈 교과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의 현실을 잘 알고, 현장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현장의 소리를 듣고 교과서에 적용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는 작업을 꾸준히 함으로써 현 시대에 부합하는 최상의 교과서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수업 중인 선생님과 학생들의 의견을 피드백 받아 필요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영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만들기 어려워하시는 것은 영어 듣기 평가입니다. 이것은 학교에 녹음 시설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원어민 발음이 필요합니다. 시험 때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잦은 빈도로 원어민 발음을 들려주어야 하는 선생님들에게는 그리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많은 선생님께서는 이 듣기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사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덜어 드리고자 듣기 문제은행을 만들어 보기로 했고, 마침내 성공적으로 만들어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졌는데, 만일 투자 대비 회수 비용만을 생각했다라면 하지 못할 작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을 맺기까지는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고, 선생님과 학생 모두에게 재미있고 효율적인 교과서가 되도록 꾸준히 개발에 힘써 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더텍스트는 편집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실제 귀사의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책을 만드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키워 내는 것이 곧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회사 직원들의 사내 교육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교재의 기획, 편집, 디자인, 인쇄, 제작 등 개발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에서부터 나날이 변화하는 신기술 문명에 대한 습득에 이르기까지 업계의 전문가 초청 강연과 해외 연수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은 누구나 본사가 운영하는 어학원이나, 계열사가 시행하는 각종 학습 채널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이 일과성으로 그칠 것을 염려하여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하여 실천하고 있는지 단계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각자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십분 발휘하여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더 나아가 전사적 역량 공유를 위해 분기마다 권장도서를 선정하여 독서 토론회를 가지며, 도출한 메시지가 자신의 업무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찾아내어 실무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당사의 경우, 교재 개발 회의가 항상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부 사원 보다는 평사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많이 주어, 그들이 자신의 의사를 편안하게 개진할 수 있

도록 합니다. 실제 많은 아이디어가 신입 사원이나 평사원에게서 나오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가 창의력과 책임감을 겸비한 인력을 찾아내고 키우는 데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은, 직원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곧 회사의 발전은 물론 본인들의 자기 계발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과서 개발과 관련하여 힘들었던 점이나 보람을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과서 발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새로운 교육과정의 이해와 적용이었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분명 그 시대와 미래의 니즈(needs)를 반영한 것입니다.

개발 일정이 촉박한 까닭에 집필자와 편집자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최적의 교수 학습 지도법을 찾아 집필과 편집에 임해야 했던 점입니다.

현재의 교과서는 내로라하는 교육학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개발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1년, 2년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의 변화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학생들의 정서와 필요에 맞는 새로운 교과서를 짧은 일정 내에 개발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한때 가설이던 지식이 정설로 바뀌고, 참신하여 신기하던 내용은 구태의연한 콘텐츠로 변해 버렸습니다. 만화책을 읽으며 재미있어하던 세대에서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도 아닌 스마트폰 세대로 바뀔에 따라 어떤 방식의 교수 학습 지도가 학생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켜 줄지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개발비와 인력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날이 변하는 새로운 교육 환경에 맞추어 최적의 교과서를 개발하고, 개발 후에도 학교 현장의 니즈(needs)에 맞추어 나가다 보니 불어나는 개발비 또한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힘든 만큼 보람도 있었습니다. 경험을 들자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당사가 개발한 교과서에 대한 평이 좋을 때일 것입니다. 당사의 “YBM 교과서로 공부하여 이만큼 컸

어요!”라고 말하는 젊은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그간의 노고를 씻는 청량감을 느낍니다. 덧붙인다면, 교육 환경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교수 학습법을 개발하여 성과가 보였을 때와 정 부보다 한발 앞서 디지털화된 교육용 자료를 개발했을 때 등입니다.

왜냐하면, 당사는 검인정 교과서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학교 교육을 선 도한다는 한마음으로 매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교과서 모습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요즘은 화두가 교과서의 디지털화입니다. 그런데 종이책이 없 어지고 디지털화된 콘텐츠인 전자책으로만 교과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을는지 자문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이책은 전자책이 가진 장점인 자료 접근의 용이성이나 방대한 양의 콘텐츠, 휴대성 등의 면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습자만의 독 창적 학습 흔적이 주는 친숙성과 가독성 면에서는 종이책이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종이책과 전자책이 공존하는 형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서를 개발하 는 입장에서 보면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종이책과 전자책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숙제입니다. 전자책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연 현상과 활동 그리고 광대한 범위에 걸친 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할 것이고, 종이책은 여전히 학습 동기를 부여하 며 활동이나 필요한 자료에 접근하는 길을 보여 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정보를 얻든, 창의력 신장이든 축적된 기초 학문을 바탕으로 발현되고 발 전되는 것이라고 볼 때,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학습자가 쉽고 재미있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전자책과 종이책이 체계적으로 융합된 형태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이 둘 간의 조화가 가장 잘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교과서가 바로 미래에 최적화된 교 과서의 참모습이 될 것입니다.

Q 앞으로 교육 출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A 출판에 오랫동안 몸담아 온 저로서는 교과서 정책의 많은 변화를 보아왔습니다. 국정에서 검정으로, 검정에서 다시 국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은 대부분의 교과목이 검정 또는 인정도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의 철저한 가격 정책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출판으로 가는가 싶더니 다시 정부의 상한가 적용 및 개발 쪽수 제한이라는 통제로 퇴보하는 정책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 책임이 단지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출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일부 작은 이익을 더 얻으려다 지금은 대다수의 교과서 출판업계가 큰 손실을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 출판업계가 나아갈 길이라면, 교과서를 개발하는 각 출판사마다 왜곡된 내용 없이 수준 높은 교과서를 개발해야 할 것이며, 발전된 교과서의 규모에 맞는 적절한 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출판인 모두가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정부의 간섭 없이 질 높은 교과서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수한 교과서에 대해 마땅히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교육 출판계가 보다 안정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

〈출처 : 2015. 7. 30. 교육부 보도자료〉



I.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행복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과서 개발 요구 증대

- 새 교육과정에 따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습자가 쉽게 배우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교과서 개발
- 신뢰할 수 있고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풍부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 개발
 - ※ 국정과제 68-③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마련’ 추진 중

□ 새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2015개정 교육과정’ 개정 추진
- 교육과정의 구체적 실현으로 배움이 즐거운 교실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교과서 개발 추진

□ 양질의 교과서를 위한 개발 체제 개선 필요

- 인정도서 확대와 검정기관 다양화에 따른 교과서 질 관리 미흡 등에 대한 지속적 문제 제기
-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 심사 및 관리 등 개발 체제 전반에 걸친 개선 필요

→ 교과용도서 집필 및 심사 체제 등의 개발 체제 전반의 개선을 통한 양질의 교과서 개발·활용으로 배움이 즐거운 교실 수업의 변화 주도 필요

Ⅱ. 비전 및 개선 과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

목 표

쉽고 재미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로 배움이 즐거운 교실

중점 개선 과제

① 국정도서 현장 검토 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검토본 편찬 과정 개선 • 현장 검토 방식 개선
② 검정도서 심사 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 심사 절차 개선 • 집필 및 심의의 안정성 확보
③ 인정도서 확대 및 개발 체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도서 인정 범위 및 활용성 확대 • 인정도서 개발 인력의 전문성 제고 • 인정도서 개발의 안정성 확보
④ 교과용도서 개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개발 연수 체제 마련 • 교과서 관리 체제 마련 • 교과서 수정·보완 종합 시스템 활성화
⑤ 검·인정 교과용도서 가격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인정 교과용도서 최고가격제 도입

Ⅲ. 세부 개선 과제

1. 국정도서 현장 검토 방식 개선

- 현장 적합성 검토 이전 단계의 편찬 과정을 개선하여 현장검토본* 완성도 제고

* '실험본'의 명칭을 '현장검토본'으로 변경하여 학생들이 실험 적용 대상이라는 부정적 시각 해소

- 현장검토본 개발 과정에서 감수를 실시하여 내용 오류 등의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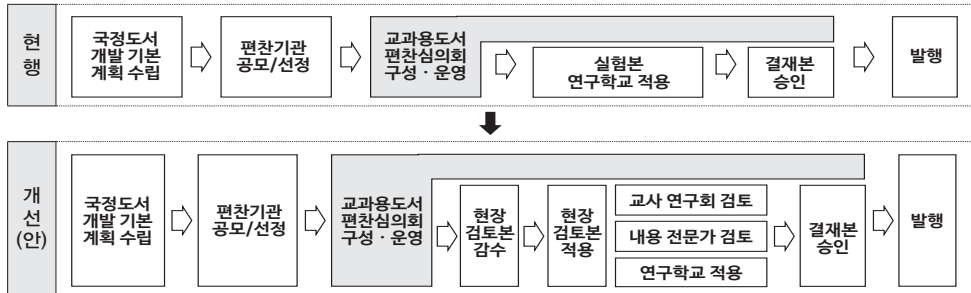
- 연구학교와 함께 현장 교사 및 전문가 중심의 현장적합성 검토

- 학생의 발달 단계와 수준에 적합한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학교와 함께 교사연구회* 현장적합성 검토를 통해 학생의 학습부담 최소화

*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된 우수 교사연구회를 중심으로 지역특성, 학교규모 등 다양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검토 추진

- 현장적합성 검토와 병행하여 교과 관련 전문기관의 책임 있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용 오류 없는 교과서 개발

[국정도서 현장적합성 검토 방식 개선(안)]



2. 검정도서 심사 체제 강화

○ 교과용도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검정 심사 절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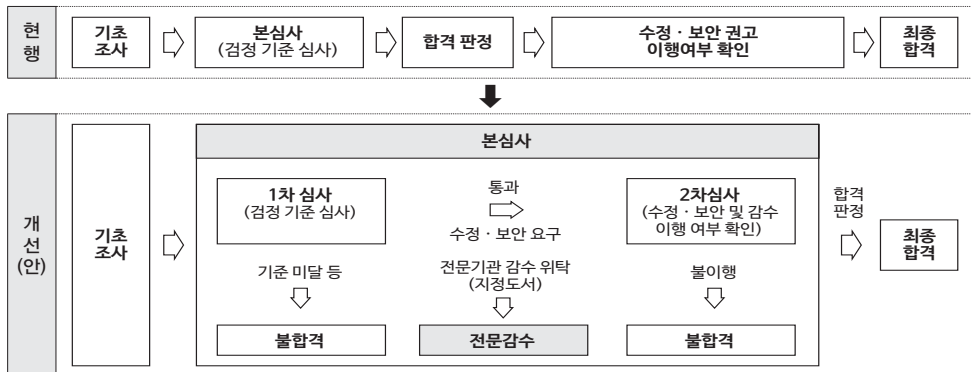
-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과 심사의 엄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정·보완 지시 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본심사에 포함*하여 실시

* 본심사를 1·2차로 구분하고, 2차에서 수정·보완 지시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

- 교과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도서는 전문기관에 감수를 위임·위탁*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교과서로 개발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감수 근거 마련)

[검정 심사 절차 개선 방안]



○ 양질의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적절한 개발 체제 마련

- 교과용도서 편찬준거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집필 방안 등을 반영하여 교과서의 학습량을 적정화하도록 유도

※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에 교과서별 기준 분량(쪽수)을 제시

- 집필 기간을 대폭 늘려(최소 1년 이상) 보다 질 좋은 교과서를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검정 공고를 검정도서 최초 사용 학년도 개시 2년 전에 실시

- 학년·학기별로 검정도서 적용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는 적용시기에 따라 분할 검정 심사 실시

*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에 따른 구분

※ (예시) 중학교 사회1, '16~'17년 검정도서 집필 및 심사 '18년 적용

중학교 사회2, '17~'18년 검정도서 집필 및 심사 '19년 적용

3. 인정도서 확대 및 개발 체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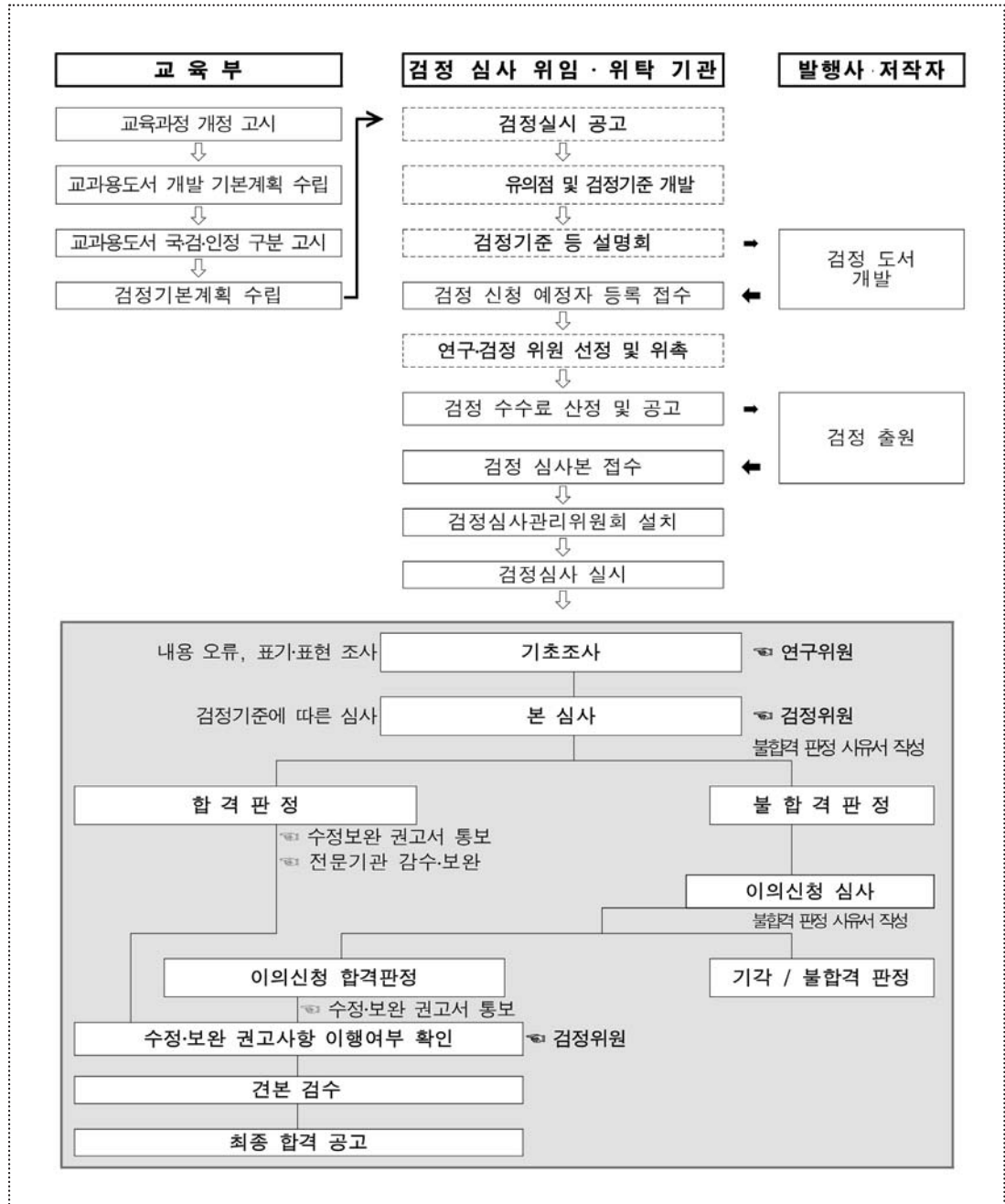
- 인정도서 질은 높이고 교과서 사용의 자율성은 확대
 - 인정도서는 모두 심의를 거친 후 사용* 하도록 하여 질을 제고
 - * 「교과용도서예 관련 규정」 제 14조 및 16조를 개정하고 ‘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는 폐지
 - ※ 「자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고교 직업교육 분야의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교재를 인정도서로 선정·사용 시 예외적으로 인정 신청 및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교과용도서예 관련 규정」 개정
 -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등의 자율적 사용이 요구되는 교과목*은 국·검·인정 구분에서 제외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개발 및 선정·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
 - * (예시) 고교지도서와 과학, 체육, 예술 계열 전문교과목 등의 일부
- 교과목 외의 비교과 활동 등의 도서도 인정·사용* 하도록 인정 도서의 범위를 확대
 - 비교과 활동(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의 도서도 필요한 경우 인정신청 및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학교의 다양한 교과서 활용성을 제고하고 교과서의 질은 제고
 - * 학교장이 해당 도서를 선정·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전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예 관련 규정」 개정
- 인정도서 개발 인력의 전문성 제고
 - 집필 및 심의진을 지역단위에서 전국단위 인력풀로 확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 및 현장 실무 경력이 높은 전문 인력 참여 유도
 - ※ 인정도서 감수 및 수정·보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공자 및 현장 경력이 풍부한 자 등이 집필 및 심의에 참여하도록 개발기관 공모 시에 기준을 제시
- 인정도서 개발 기간 및 심사의 안정성 확보
 - 충분한 집필 및 심의 기간을 확보* 하고 심의 있는 인정도서의 경우 심사 절차를 검정도서 심사에 준하여 개선
 - * 집필 기간 : 12개월 내외, 심사기간 12개월 내외 확보
 - * 교육청간 인정도서 업무의 조정 및 협력 등을 위한 협의체로 ‘인정도서 공동관리위원회(가칭)’ 구성 및 운영 활성화

4. 교과용도서 개발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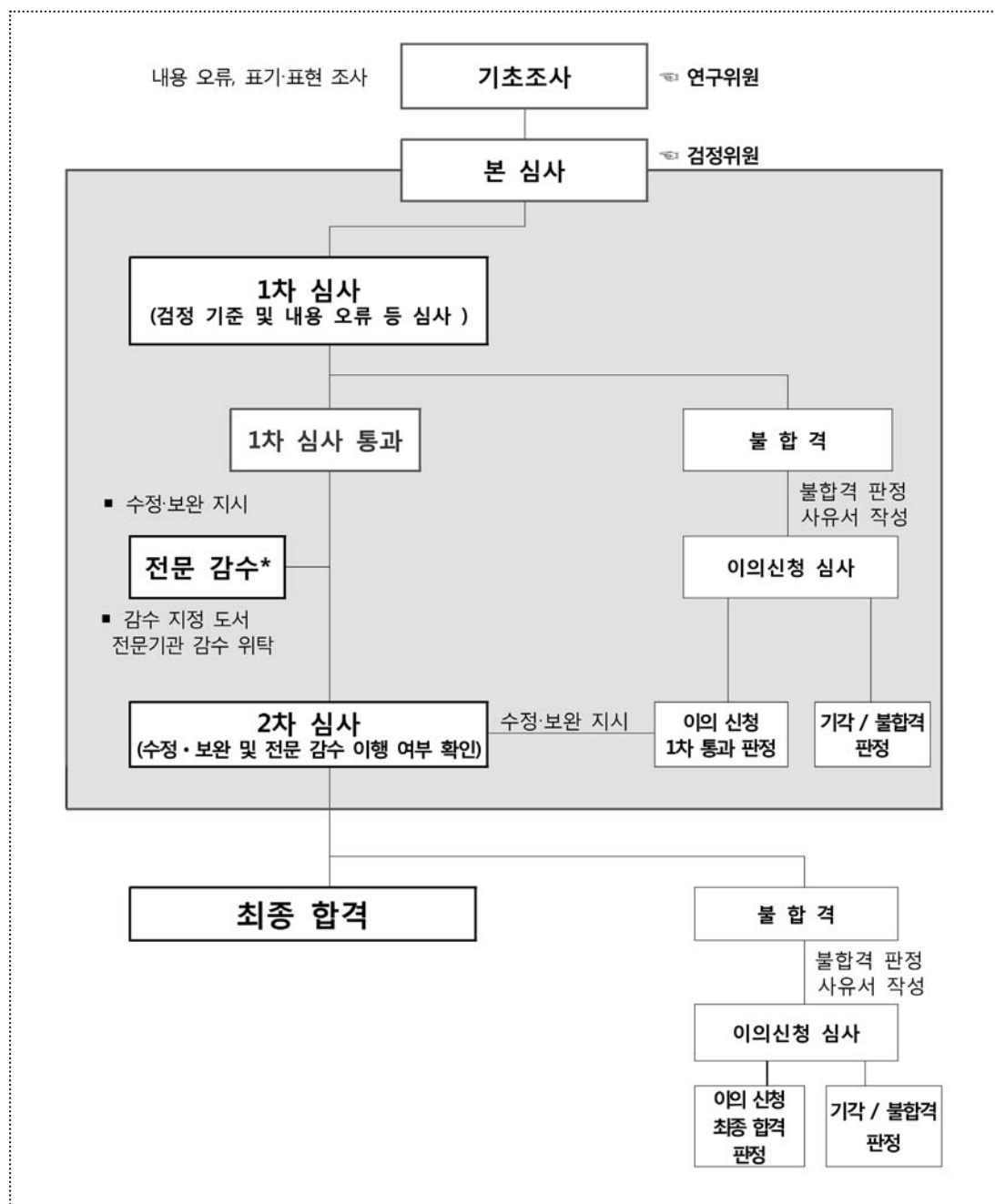
- 교과서 개발을 위한 체계적 연수 실시
 - 국·검·인정도서별 교과서 발행사, 집필진, 심의진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 연수 실시
 -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 편수자료, 검·인정 기준, 집필기준, 저작권 등을 연수
 -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연수 : ’15.10~’16.1월 예정
- 교과서 수정·보완 및 연구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납본 제도화
 - 교과용도서 발행자는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및 연구 등을 위해 교과용도서(수정증보판 포함)를 교육부에 납본토록 제도화
 - ※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 이상 교육부에 납본하도록 「교과용도서예 관련 규정」 개정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지원 체제 활성화
 - 교과서 수정·보완 DB 구축 온라인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수정·보완 이력 관리 및 검색 기능을 강화* 하고 학교 현장에 실시간 제공**
 - * 교과서별 수정·보완 내역을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기능 수준으로 교과서별 및 수정·보완 내용 단어별 검색 가능
 - **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수정·보완 시스템에서 실시간 교과서 수정·보완 열람 가능
 - 국·내외 교과서와 전문도서 등이 구비된 교과서 자료관을 확충하여 수정·보완 시에 교과서 및 전문 자료 검색 등을 지원

5. 검·인정 교과용도서 가격안정화

- 검·인정교과서 최고가격제 도입
 - 학교급별, 학년별, 교과목별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출판사가 해당책의 최고가격 내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
 - ※ ‘최고가격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교과용도서예 관련 규정」 개정

붙임 **검정 심사 체제 개선안**□ **검정도서 심사 체제 (현행)**

검정도서 심사 체제 (개선안)



TIOS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가입문의

오타자수정

제본불량

교환문의

교과과정
문의

제안하기

교과서
내용문의

교과서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One-stop으로!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IOS

교과서는 어디서 사야 하지? 교과서 불량은 어디 가서 신고하지?
사소한 일이지만 많이 답답하셨나요? 교과서 관련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 포털사이트, TIOS를 방문하세요.
교과서에 관한 문의부터 오탈자 수정, 제본불량 신고, 그리고 새로운 제안까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IOS가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약속 드립니다.

교과서 민원 처리는 Yes, TIOS!

● TIOS란?

TIOS는 Textbook Information One-stop Service의 줄임말로,
교과서 관련 민원 업무의 One-stop 처리가 가능한 교과서 관련
포털 사이트입니다.

● TIOS이용방법

TIOS는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66-8572**

www.교과서114.com
www.textbook114.com

• 교과서 개별구입안내 •

2015학년도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교과서별 구입처

교 과 서		구입처	전화번호
국정	초등	• 국어(국어활동, 듣기·말하기·읽기, 쓰기 포함) • 과학(실험관찰 포함)	(주)미래엔 textbookmall.mirae-n.com 1800-8890
		• 수학(수학익힘책 포함) • 사회(사회과탐구, 사회과부도 포함) • 도덕(생활의길잡이 포함)	(주)천재교육 www.chunjae.co.kr 1577-0902
		• 통합과목(학교, 봄, 가족, 여름, 나, 이웃, 가을, 겨울, 우리나라)	(주)지학사 www.jihak.co.kr 02-330-5302
	고등	• 체육계, 수산·해운계	(주)미래엔 textbookmall.mirae-n.com 1800-8890
		• 공업계, 농업계, 상업계, 외국어계	(주)천재교육 www.chunjae.co.kr 1577-0902
		• 가사·실업계	(주)지학사 www.jihak.co.kr 02-330-5302
검·인정	초등 중등 고등	• 위 교과서 이외의 검·인정교과서 (인정교과서 일부 제외)	(사)한국검인정교과서 www.ktbook.com 031-8071-7981

□ 서울지역 직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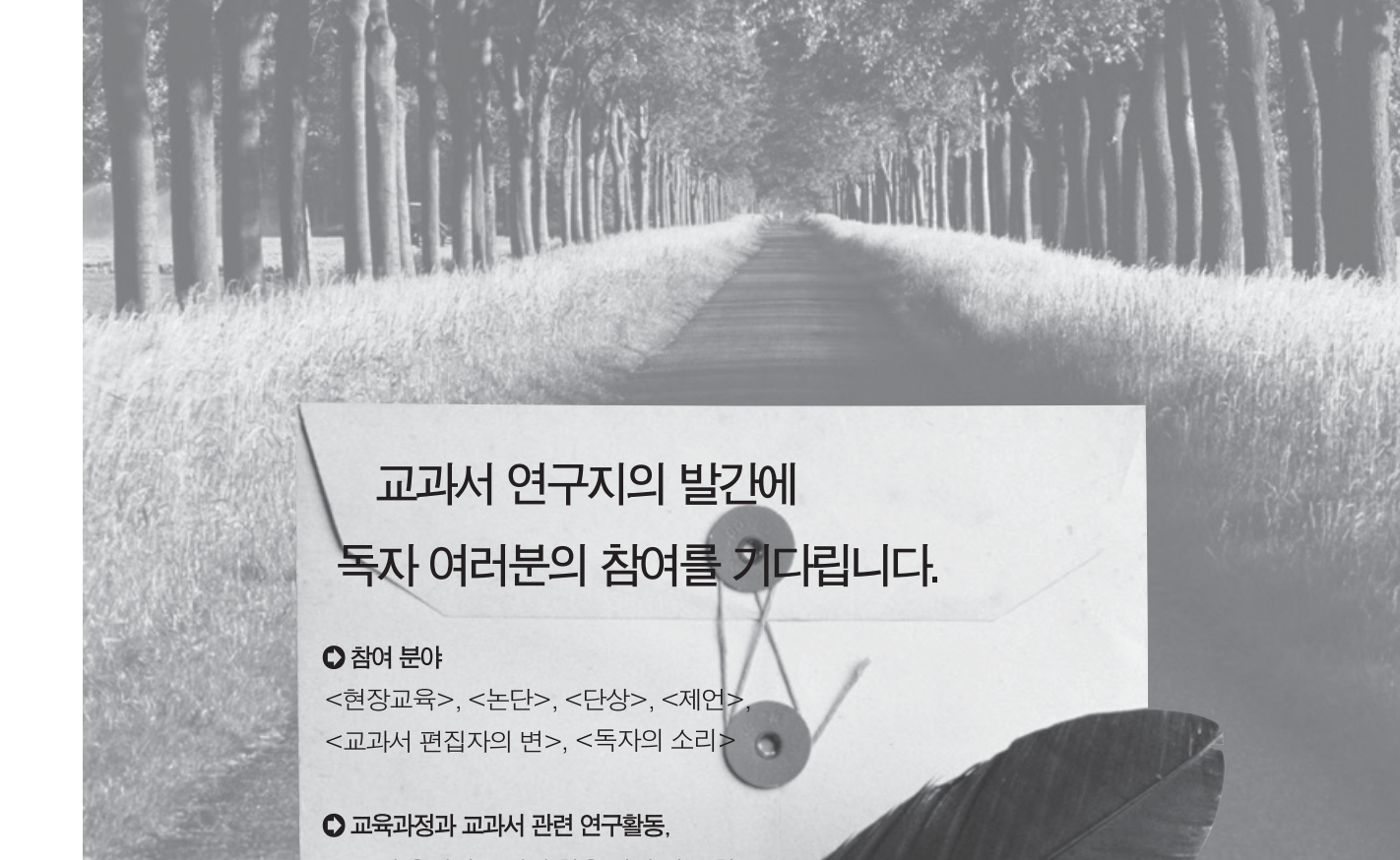
(주)미래엔 직매장 - 초등학교용 (주)미래엔 국정교과서만을 판매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주)미래엔빌딩 1층 ☎ 02-3475-4097
- 지하철 :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에서 직진 도보 5분소요

각 지역별 교과서 지정 판매서점

지 역 별	상 호	전화번호	판매도서
서울	종로구 (주)교보문고(광화문)	02-397-3441	국·검·인정
	서초구 (주)교보문고(강남)	02-503-0311	국정
	송파구 (주)교보문고(잠실)	02-2140-8822	국정
	양천구 (주)교보문고(목동)	02-2062-8801	국정
	영등포구 (주)교보문고(영등포)	02-2678-3501	국정
	종로구 (주)영풍문고(종로)	02-399-5625	국·검·인정
	성북구 (주)영풍문고(미아)	02-2117-2880	국정
	영등포구 (주)영풍문고(여의도)	02-6137-5253	국정
	동대문구 (주)영풍문고(청량리)	02-3707-1863	국정
	노원구 그랜드문고	02-938-1065	국정
	서초구 서울문고(센트럴점)	02-530-0718	국정
	강남구 서울문고(코엑스점)	02-556-6002	국정
	강남구 (주)영풍문고(코엑스점)	02-6002-2707	국정
	강동구 예림문고	02-477-8600	국정
	도봉구 예일문고	010-9769-0428	국정
	성동구 경일사	02-2296-7671	검·인정
	종로구 (주)리브로(구로점)	070-4726-2841	국·검·인정
	동대문구 성현문고	02-967-3838	검·인정
	강남구 반디앤루니스	02-6002-6021	검·인정
부산	용산구 (주)대교문고	02-2012-3544	국·검·인정
	노원구 (주)노원문고(중계점)	02-2091-0633	국·검·인정
	강동구 동북문고	02-477-8200	국·검·인정
	관악구 (주)북선커뮤니케이션	070-4700-1975	국정
	중랑구 관악도서	02-2207-7802	국정
	금정구 영풍문고	051-590-8300	국정
	부산진구 교보문고	051-731-3601	국정
대구	부산진구 영광도서	051-816-9500	국·검·인정
	사하구 문학서점	051-204-0465	국·검·인정
	사하구 예림서적	051-203-3383	검·인정
	중구 남포문고	051-245-8911	검·인정
	중구 문우당서점	051-241-5555	국정
	사상구 태학도서	051-313-1718	국정
	해운대구 영재서적	051-703-0708	국정
대전	중구 영풍문고	053-428-6700	국정
	수성구 (주)세원출판유통(범어점)	053-423-0517	국·검·인정
인천	부평구 부평문고	032-529-0077	국정
	부평구 교보문고	032-455-1000	국정
광주	서구 영풍문고	062-364-0210	국정
	동구 종합도서	062-222-8524	국·검·인정
대전	중구 (주)계룡문고	042-222-4600	국·검·인정
	서구 세이북tm	042-611-8061	국정
세종	세종 세이북스	044-864-4433	국정
울산	울산 영풍문고	052-228-1051	국정

지 역 별	상 호	전화번호	판매도서
경기	수원시 (주)경기서적	031-248-6300	국·검·인정
	정부 송문당	031-846-2666	국·검·인정
	안산 대동서적(주)	031-406-6666	국·검·인정
	부천 (주)경인문고	032-613-2197	국·검·인정
	구리 동원서적	031-563-4621	국·검·인정
	일산 정글북	031-922-5000	국·검·인정
	평택 평택문고	031-651-9204	국·검·인정
	당리 브로	070-4726-2886	국정
	광명 일지서적	02-2613-2744	국정
	양양 교보문고	031-466-3501	국정
	남부 베스트북	070-7570-5172	국정
	인성 수지문고	031-265-4031	국정
	남양주 중원문고	031-736-2600	국정
	수원 영풍문고	031-267-5555	국정
	시흥 한가람문고	031-404-0161	국정
	화성 더북스삼성	031-8015-4451	국정
	성남 공손서점	031-703-7279	국정
	김포 열린문고	031-982-2007	국정
강원	춘천 교학사	033-244-0044	국·검·인정
	해운대 제일서점	033-254-4133	국정
충북	청주 유신상사	043-252-5945	국·검·인정
	충주 이학사	043-847-3493	국정
충남	천안 열린문고	041-573-0827	검·인정
	천안 천안서적	041-578-1545	검·인정
전북	전주 국민도서	041-558-0004	국정
	전주 홍지서림	063-288-5311	국·검·인정
전남	순천 중앙서림	061-723-9902	국·검·인정
	목포 책사랑문고	061-279-2504	국정
경북	포항 학원사	054-249-3396	국·검·인정
	경주 성암교재사	053-811-8222	국정
경남	창원 현대서점	054-774-3338	국정
	창원 창원문고	055-283-2848	검·인정
경남	창원 창원서적	055-282-1544	국정
	창원 창원해산주	055-343-7893	국정
제주	창원 영풍문고	055-240-5690	국정
	창원 대양서적	055-741-2835	국정
제주	제주시 탐라도서(주)	064-755-3335	검·인정
	제주시 현대서점	064-748-1177	국정



교과서 연구지의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참여 분야

<현장교육>, <논단>, <단상>, <제언>,
<교과서 편집자의 변>, <독자의 소리>

▶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활동,

-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사례 연구 활동,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 기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보내실 곳 : editor@textbook.ac

문의전화

02-6206-6357 「교과서연구」 담당자 유순기

교과서가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이제 교과서 원문 DB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정보관

교과서 원문 이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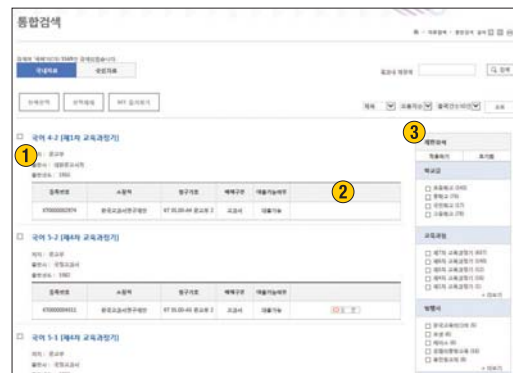
메인페이지 원문검색 안내

- ① **페이지 주소창** - <https://www.kotry.kr>를 통해 한국 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홈페이지에 접속.
- ② **도서관 협약유무 확인** - 협약도서관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으며, 메인페이지에서 협약도서관 안내를 통해 원문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
(도서관안내 > 교과서정보협력망 > 협약도서관안내)
- ③ **검색어 입력** - 원하는 교과서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어를 입력. (ex. 국어, 검정, 6차교육과정 등)
- ④ **원문검색** - 원문만 검색결과에서 보고 싶은 경우, 간략서지정보 화면의 제한검색에서 '원문'의 '있음'을 체크한 후 상단의 '적용하기'를 선택.



검색결과 간략화면 안내

- ① **간략서지정보** - 결과가 보여주는 결과 화면. 원문이나 목차 등의 부가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가능여부 옆에 목차/원문/참고문헌 아이콘이 게재됨.
- ② **원문 아이콘** - 원문이 존재하는 서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아이콘. 클릭하면 해당 도서의 원문을 볼 수 있으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
- ③ **제한검색(Facet)** - 키워드 등을 통한 검색결과에서 학급, 교육과정, 발행사, 저자별, 연도별, 원문 유무 등으로 검색결과를 제한하여 볼 수 있음.



검색결과 상세화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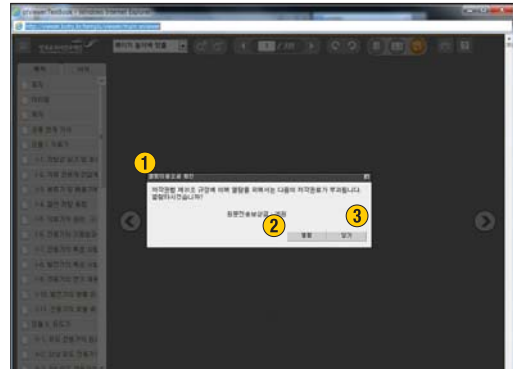
- ① **상세검색 결과** - 간략서지정보에서 선택한 서지의 상세내용이 보여지는 화면. 해당 도서에 대한 정보 및 MARC보기, 즐겨찾기 추가, 자료예약 등이 가능함.
- ② **소장 정보** - 해당 서지의 소장자료 정보 확인. 등록번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등 확인 가능.
- ③ **유사컨텐츠** - 해당 도서와 유사한 컨텐츠를 모아서 볼 수 있으며, 자료명을 선택하면 해당 도서 정보로 이동.
- ④ **부가정보** - 목차, 초록 등의 부가정보를 보여준다.



교과서가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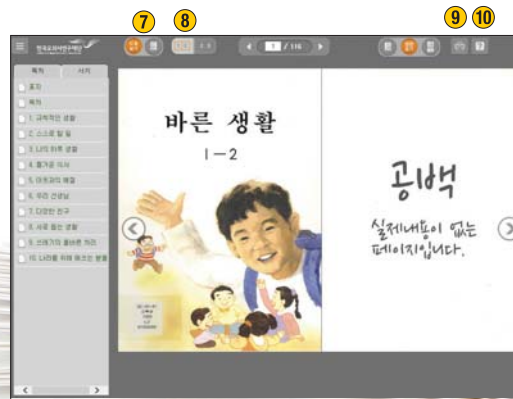
원문이용시 이용요금 확인

- ① 열람이용요금 확인 - 원문 선택시 저작권법 안내, 이용 요금에 대한 안내 확인.
- ② 열람 -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료가 부가됨을 안내 받고 지불의사가 있을 경우 '열람'을 선택하여 원문을 열람.
- ③ 닫기 -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료가 부가됨을 안내 받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닫기'를 선택하여 창을 닫음.



원문뷰어 이용

- ① 목차 및 서지정보 - 원문의 목차 및 서지정보표시 (목차 선택시 해당 페이지 이동)
- ② 화면배율 선택 - 페이지 높이에 맞춤/페이지 너비에 맞춤/50%/100%/200%/300% 선택
- ③ 확대/축소 - 원문 이미지 확대 및 축소
- ④ 페이지 이동
 - 이전 페이지 (◀) / 다음 페이지 (▶) 이동
 - 해당 페이지 직접 이동시 페이지 번호 입력 후 엔터
- ⑤ 회전 - 원문 이미지 회전(좌우 회전)
- ⑥ 보기 설정 - 원문 이미지 페이지 보기 설정 *단면보기/양면보기/세로보기 선택
- ⑦ 제본 설정 - 원문 이미지 제본 설정 * 좌철보기/우철보기 선택
- ⑧ 제본페이지 설정 - 원문 이미지 좌우 정렬설정 변경
- ⑨ 도움말 - 통합 뷰어 이용 안내
- ⑩ 인쇄 - 원문 이미지 출력





교과서정보서비스 원문 협약 체결 안내

-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구축한 원문DB를 이용하기 위한 교과서정보서비스의 원문 협약 절차 안내입니다.
- 우리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교과서 전문도서관 구축 사업을 통해 교과서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국회도서관의 원문서비스와 같은 방식으로 제4차 교육과정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의 교과서(4,850권)를 원문 DB화 하여 도서관 보상금 제도를 통해 서비스 중 입니다.

대 상

전국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자료실), 학교도서관 등

협약 절차 안내

- ①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협약 체결
- ② 협약 완료 후 재단으로 이메일 통보 또는 협약 관련 담당자에게 전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유순기, 02-6206-6357, editor@textbook.ac)
- ③ 공문서에 의한 협정방식을 원하는 기관은 담당자에게 협약서 및 등록서 전송 요청
- ④ 협약서 및 등록서를 작성 후 재단 관리자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달
- 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도서관보상금관리시스템(<http://www.kotry.kr/libfee/>)에 접속하여 도서관기호 및 등록서에 작성한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
- ⑥ 사용하고자 하는 좌석의 IP정보를 입력 후 담당자에게 통보

참 고

- 기관 내에서 비공인IP(사설IP)를 사용하는 경우, 공인IP 및 비공인IP를 모두 입력하여야 합니다.
-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원문 뷰어는 별다른 설치 과정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인쇄를 하고자 할 경우 과금을 위한 activeX 설치가 필요합니다.)
- 개인납부 방식을 사용하는 기관은 자체 프린터 기기 및 과금장치업체와 연결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관리자가 기관 및 IP정보를 확인 후 접속에 대한 허용을 하여야 원문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단 및 관리자의 사정에 따라 허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협약체결 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수원박물관, 신라대학교, 목원대학교,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한국스포츠개발원, 용인대학교, 경기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호두가 1등 이 되는 1등상

천재교육이 앞장서겠습니다.

“엄마, 독도에 코끼리바위가 살아요.
코끼리바위가 광이갈매기를 매일 업어줘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 독도엔 코끼리바위가 있습니다.
이제 독도도 교과서로 배웁니다.
우리의 독도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하니까요.
독도 사랑도, 독도 공부도 우리가 1등입니다.

 천재교육



1948년

교과서 사업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었습니다.

2015년

교육, 출판 및 국내외 인책사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교육 출판 문화를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미래엔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사업

검정교과서, 참고서, 파사쥬논술



교과서사업

국정교과서, 인정교과서



출판사업

아이세움, 북폴리오, 와이즈베리



인책사업

국내·해외인책, 디지털인책



계열사

전북도시가스, 미래엔서해에너지, 현대문학, 미래엔에듀케어,
미래엔인천에너지, 부흥개발, 목정문화재단, 목정미래재단

교과서 박물관
TEXTBOOK MUSEUM